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보스톤 일본 축제 관객 6만여명 찾아

역대 최대규모로 성장
관객 지난해 두배로
한인도 벤치마킹 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올해 보스톤 커먼에서 개최된 '재팬 페스티벌 보스톤 (Japan Festival Boston)'에는 작년의 두배 규모인 6만 여명의 관객이 찾았다고 재팬 페스티벌 운영위원회가 밝혔다.

지난 24일 보스톤 커먼에서 개최된 일본 페스티벌은 90개의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열렸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스폰서 유치에서도 큰 성장을 보였다. 올해 축제에는 작년보다 21개가 증가한 35개의 개인 및 단체가 스폰서로 참여했다. 스폰서 기업에는 일본 항공, 유니클로 등의 일본 기업뿐 아니라 보스톤 레드삭스, 샌턴더 은행과 같은 미국 내 로컬 단체나 기



쇼와 여자대학 보스톤 캠퍼스의 학생 250여명이 이날 행사를 도왔다

업들도 메인스폰서로 다수 참여했다.

이날 축제에서 가장 인기를 끈 곳은 푸드코너였다. 유메오 카타레, 잇토쿠 등 보스톤 지역에서 영업중인 22개의 일본식당들이 푸드코너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일본식 라면, 오코노미야키, 야키소바 등을 판매했다. 관객들은 160피

트가 넘는 긴 줄에도 아랑곳 않고 한곳에서 다양한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눈에 띄었다. 보스톤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쇼와 여자대학은 ▶▶2면으로 계속

한서혜, 보스톤 발레단 백조의 호수 첫 주역

오데트와 오딜 1인 2역 연기 도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발레리나 한서혜가 보스톤 발레단 (Boston Ballet)이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 (Swan Lake)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주역인 오데트와 오딜을 맡아 1인 2역을 연기한다.

한서혜는 2012년 보스톤 발레단에 군무를 추며 배경 역할을 하는 무용수인 코르드 발레로 입단했다. 한씨는 1년 만에 세컨드 솔로이스트로, 그리고 2014년에 솔로이스트로 승격했으며 2016년인 올해 보스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에서 오데트와 오딜 역을 맡게 된다.

보스톤 글로브는 4월 17일 보도에서 처음으로 보스톤 발레단과 함께 백조의 호수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하게 된 한서혜 씨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한 씨는 이 신문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활동하던 20대 초반에 유리 그리고비치 (Yuri Grigorovich)의 안무 연출로 기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From \$1550
다양한 항공
여행상품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상업여행: 일본 / 소련 15년째 계약 회사
출발연락: 888-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예약처: www.iace-travel.com *여행보험: 어어디 트러블케어
보상금 지급: 1-877-438-4223 (Toll Free) *여행비 40% 환불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ame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45.1587
juno@selamifirm.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보스톤 커먼 일본 축제 일본 학생들이 적극적 참여 돋보여

▶▶ 1면에 이어서

약 2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축제의 원활한 일정을 도왔다. 이들은 축제의 스태프 역할 뿐 아니라 일손이 모자란 푸드코너와 일반 기업 부스를 지원했다. 보스톤 대학 (BU), UMASS, 서픽 대학교등과 같은 보스톤 지역의 일본인 학생회들도 각자의 부스를 만들어 일본 문화를 홍보했다. 이들은 물론건 건지기, 고무총 쏘기등 일본의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하여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자녀와 함께 축제를 찾은 마크 오티스(캠브리지 거주)씨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보스톤에서 한국과 관련된 큰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대답했다.

보스톤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김지영씨는 일본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국내 축제에서 일부 상인들이 한철 장사로 바가지요금을 긁는 것과

지적하며, “여기는 사람도 많은데 즐길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가지게 될 것 같다” 고 대답했다.

재팬 페스티벌의 실행위원인 쿠로다 마오(20세·학생)씨는 “일본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긴 줄도 마다않고 기다려 준 보스톤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쇼와 여자대학 보스톤 캠퍼스에 재학중인 그는 “일본인으로서 외국에서 일본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100년뒤에도 지속되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일본인 예술가들이 중앙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고, 보조 무대에서는 일본의 전통 춤 공연과 코스튬 플레이 대회가 열렸다. 중앙 무대 주변에 마련된 각 부스에서는 기모노 체험, 붓글씨 쓰기, 율해 운수보기 등의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도 마련되었고, 한편에서는 NPO단체 JREX가 구마모토 지진 모금활동을 벌였다.

itshunne@bostonkorea.com



축제에 참여한 관객들이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체험하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모금함에 한 시민이 응원의 메시지를 적고 있다



관객들이 인기 애니메이션 세일러문 복장을 입은 코스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김우혁 재향군인회장 장남 별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김우혁재향군인회장 아들 마이클이 25일 저녁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향년 36세.

고 마이클 군의 웨이크는 28일 목요일 저녁 6-9시이며 장례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이다. 장례식장은 월담 소재 조이스푸너럴홈(781-894-2895)이다.

(Wake) 날짜 : 4월28일(목) 저녁 6시-9시

(장례예배) 날짜 : 4월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Joyce Funeral Home - 245 Main St., Waltham, MA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미국사회 한걸음 더 들어간 국악

가야금으로 바흐 연주, 바이올린으로 찬조 연주
젊은 국악인 한국 음악인 손잡고
국악을 미국에 소개하는 록처 콘서트 시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악이 국경을 넘는데 그치지 않았다. 국악으로 미국인들과 대화하며 국악과 서양음악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록처 콘서트>가 케임브리지 소재 소극장 더릴리패드(The Lily Pad)에서 열렸다.

젊은 국악인 김도연 씨와 작곡가 홍재현,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채 씨는 음악의 국경과 한계에 도전했다. 현대 가야금으로 듣는 바흐가 있었고, 가야금 산조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 그리고 피아노, 가야금, 바이올린 그리고 각종 악기가 함께하는 즉흥연주도 있었다.

작은 소극장에 모인 30여명의 관중들은 국악의 리듬과 음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양음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작은 첫걸음이지만 국악이 미국인들의 음악 세계로 발을 들여 놓는 시도가 분명했다.

보스톤총영사관 이광석 영사는 “젊은이들의 시도가 아주 신선하다. 국악을 세계화 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과거

국악기로 클래식을 연주해 국악을 알리려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고 밝혔다.

가야금을 연주하고 국악을 주로 설명한 김도연 씨는 “관객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다음 공연은 언제 하느냐고 묻는다” 고 밝혔다. 일부 음악하는 친구들은 “이것을 배워서 자신들의 음악에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처음하는 시도라서 어려움도 많았다. 바이올린과 어떻게 새롭게 연주할 것인지 많이 노력했으며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아주 재미도 느꼈다고 김도연씨는 밝혔다.

홍재현 작곡가는 “도연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음악을 알리고 연주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서 이번 록처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들의 두번째 콘서트는 올해 가을 열릴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1.국악인 김도연 씨가 장구를 이용해 한국 국악의 장단을 설명하고 있다 2.김도연 씨가 즉흥연주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 3.작곡가 홍재현 씨(좌),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채(가운데), 국악인 김도연 씨(우)가 협연하고 있다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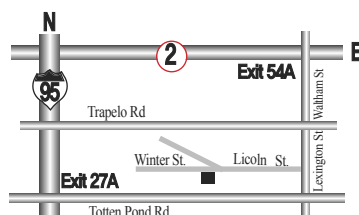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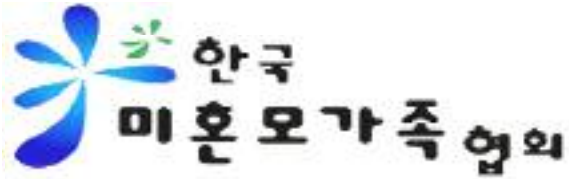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KADtalk) 한국 미혼모 모금 만찬



입양아 친목모임 한국 미혼모와 출생아동 돕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계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KADtalk)의 6월 4일 토요일 성금 모금 행사가 하버드 대학 윌리엄제임스홀의 지하 강의실 1(William James Hall, Basement Lecture Hall 1)으로 변경됐다.

이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보스톤대학 아리사 오 교수의 사회로 간단한 저녁식사, <달콤한 농담>영화상영 후 한국의 미혼모를 지지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날 모인 후원금은 모두 미혼모 협회에 전달된다.

이후 하버드대학 사회학과 장윤식 교수의 사회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한국 미혼모가족협회 (Korean Unwed Mothers Families Association, KUMFA) 목경화 회장, 입양 자원봉사자 새년 하이트 씨와 함께 전화를 통해 질문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국계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KADtalk)와 보스톤한미예술회가 같이 진행한다. 한국계 입

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KADtalk)는 보스톤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아들이 함께 책도 읽고 영화도 보는 느슨한 친목모임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는 한국 미혼모들이 혼전 출생아들의 미국 입양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과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 이번 모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미혼모 가족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매년 1,000명 넘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 그중 90%가 미혼모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한국사회에서 터부시 되는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다.

입양아 친목모임 캐드토크를 이끌고 있는 김새봄 (Sae bom SooHoo)씨는 김씨는 “이번 성금모금 행사에 많은 자원봉사자와 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도움을 부탁했다.

김새봄씨는 대구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 후 미국으로 입양됐다. 당시 김 씨



의 어머니는 미혼모로 새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입양 수속을 마쳤었다. 김 씨는 한국의 미혼모들이 그의 생모처럼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이번 성금모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가비는 5월 21일까지 등

록하는 경우 \$20이며, 이후 6월 4일까지는 \$30이다. 학생의 경우 \$10로 일괄적이다. 관심있는 한인들은 KADtalkboston@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웹 주소 : kumfundraiser-boston.com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KGC 연삼공사

가정애달 사랑이벤트

행사기간
5월 1일 ~ 5월 15일까지

프로모션 기간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매장에
모실 수 없는 경우 매장에 전화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vent 1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FREE
50g Extract



(\$46 상당)

10% OFF

등인비
전제품



6년근 홍삼과 고급 녹차가 만났다!

**천녹삼 구매시
홍삼정 120g 무료증정**

Event 2

10% OFF



홍삼분 / 추출액 / 지너제품 구입시 10%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FedEx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자선음악회 개최

클래식에서 재즈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이 연주될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인교회는 5월 14일 저녁 7시 30분 브루클라인소재 교회에서 자선음악회 “Voices of Harmony Concert” 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짜르트, 피아졸라 (Piazzolla), 거윈 (Gershwin), 스트라우스 (Strauss) 등 클래식에서 재즈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이 연주된다.

1부는 모짜르트의 Sinfonia Concertante, 거윈의 Summer time 등 클래식과 세미클래식을 오가는 연주로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2부에서는 재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재즈의 거장 피아졸라의 “Four Season of Buenos Aires,” 그리고 대표곡들이 피아노 트리오와 재즈양상블로 연주된다.

보스톤 한인교회 이지훈 씨는 “국내의 콩쿨에서 최고의 수상경력을 가진 출연진들이 이번 음악회에서도 그들만의 극한 예술적 기량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출연진들은 박기나, 고은애(바이올린), 최혜민(비올라), 문태국(첼로), 안지혜(피아노

), 조유미(소프라노), 장승호(재즈 더블베이스), 박진욱씨가 지휘하는 KCB 앙상블이다.

삼세대가 함께 배우는 보스톤 한인교회의 이영길 담임목사는 “이번 <Voices of Harmony Concert>가 세대를 아우러 온 가족이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바램을 전했다.

보스톤 한인교회는 “시리아난민을 위한 음악회”, “탈북난민을 위한 음악회” 등 이미 몇 차례의 자선음악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나누어 왔다. 이번 음악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범 장로는 음악회의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을 도움이 절실한 곳에 기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스톤 한인교회

(kcbweb@hotmail.com)

티켓: \$20

시간: 2016년 5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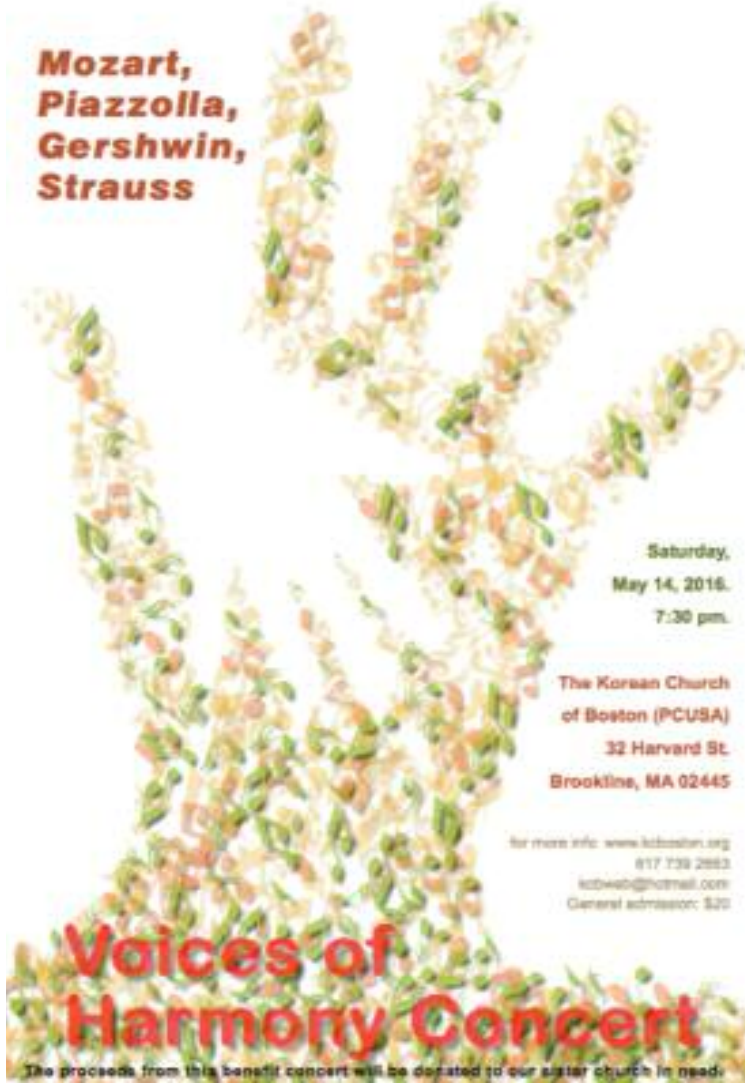
토요일, 7:30pm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 MA

www.kc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피아니스트 김호준 보스톤 팝스와 협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피아니스트 김호준이 오는 5월 7일, 8일 보스톤 팝스와 협연한다.

보스톤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 경연대회 우승자인 김호준은 보스톤 심포니 홀에서 열리는 키이스 로카트 지휘 보스톤팝스 오케스트라와 프란츠 리스트 토텐탄츠 (Franz Liszt's Totentanz)를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김호준은 뉴잉글랜드 콘서버토리 (NEC) 변화경 교수의 사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필립스엑스터아카데미 11학년에 재학 중이다.

김호준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각종 피아노 경연대회 상을 휩쓸었다. LA 국제 리스트 경연대회에서 2등, 시애틀 국제피아노경연대회 세미파이널리스트 등을 수상했다.

현재 국무부 벤자민프랭클린 트랜스애틀랜틱 펠로우이며 모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와 각종 토론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작문대회 100여명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41주년을 맞이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6일 제 10회 교내작문대회를 개최해 총 100여명의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했다.

기초 1~3과정 및 이중언어과정을 제외한 일반과정 및 SAT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작문대회에서 모두 13개 부문에 2백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각자 한글 작문솜씨를 발휘했다.

이번 행사의 심사를 맡은 한 교사는 "기초-2 및 3부문에서 추천된 일부 저학년 학생들이 비록 철자법은 많이 틀렸어도 또박또박 써 내려가며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글로 써 보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나에겐 자기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며 "주말에 쉬고 싶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자기 나라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학교를 다니는 것이어서 토요일에 한국학교에 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밝힌 초등학생의 생각이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저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재미있는 인생 중에서 겪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 직업을 오래 동안하는 어른이 될 겁니다."고 밝힌 중급과정 학생과, "한글은 제가 한국사람으로서 제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의 인생은 물론 정체성에 대해 쓴 고급과정의 글을 읽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성숙된 자아와 한인 2세로서의 올곧은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 많이 나왔다"며 감탄했다

동포 2세들의 한글교육은 물론 올바른 역사 및 문화교육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위해 늘 힘쓰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4월 30일에는 중고급 과정 학생들이 참가하는 제 9회 영한번역대회를 가지며 이중언어과정



고급2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수경 양 학생들이 참가하는 제 1회 My Dream Essay Contest 등과 꿈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7일에 각 부문별로 고려대와 한양대 동문회 및 시민협회 및 과거협회장과 나의꿈국제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상하게 되며 작문대회 대상 수상작 중 선별하여 수상자들이 직접 글을 발표하는 기회도 갖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심사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
기초-2 특강반	안솔무분	성혜서 신혜민	이연순 선지유	안호기 김내현 이호준	박요한 김종현 민재홍
기초-3 특강반	김혜연 정진우	박혜연	박순영	박윤민	이성우
기초-4 1 & 2부문	이노아	세종대왕 김예진	기예린 이연우	황은하	배시훈 권다아
		박지은 안희기	이예진 나예준	최재은 문진우	김시우 김은서
초급1- 1 & 2부문	이준호	이세리	선지영 신승범	이영진	박시영 송연
		안혜연	김신아	심이슬	이지은 이민우
초급2- 1 & 2부문	김다연	이예린	김예린	임재민	유혜린 이재과
		최예린	시예린	남소우	고시비 신유미
초급3 부문	이혜연 김태유	최서영	이수연 최유니	최유선 노선	이샘 미니
중급1 부문	서기진	김수지 허선미	이재서	김솔	권민니
중급2 부문	이유나	채민아	이예은	최정연 이상재	이유진
중급3 부문	정기서	최유민	이진희	오혜나	최재경
고급1 부문	채민희	이지분	김산	이혜은 이연상 김대연 이하유	박정은 최예스디
고급2 부문	김수경	양예수	윤호원	변성민	박영우 김수원
고급3 부문	김혜진	박주수	이하연	이지우	이재준 이하연
11-12학년 (SAT반)	이세현	이린	정원세		

시상식은 5월 7일에 각 부문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 협선 등 6가지로 시상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와 각 부문 가작 수상자 포함 수상자 전체명단은 학교 홈페이지(www.kvusa.org) 참고



보스톤 발레단(Boston Ballet)이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Swan Lake)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주역인 오데트와 오딜을 맡아 1인 2역을 연기하는 발레리나 한서혜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에서 5월 26일까지 공연

1면에 이어서
획된 전통적인 버전의 오데트와 오딜을 연기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개인적으로 테크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자체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 오데트를 연기하기가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날개가 커다란 백조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팔을 어깨가 아닌 온몸으로 움직이는 연습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한 공주 오데트와 그를 구하려는 왕자 지그프리트의 이야기로, 마법에 걸린 청순하고 가녀린 백조 오데트와 매혹적인 카리스마를 갖춘 흑조 오딜을 1인 2역으로 연기하는 프리마 발레리나의 역량이 특히 중요한 작품이다.
한서혜 발레리나가 서는 보스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연된다. 현재 홈페이지에 소개된 5월 8일까지의 공연에는 다른 솔로리스트가 무대에 서므로 한 씨가 서는 무대를 보고 싶다면 5월 8일 이후부터의 보스톤 발레단 캐스팅을 확인해야 한다. 티켓: \$45-\$220. 예매문의: 617-695-6955, www.bostonballet.org

백조의 호수는 악마 로트바르 sun@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위안부 뮤지컬, 한국인 후원자 대부분 철회

뮤지컬 감독 김현준 씨 하버드 강연에서 밝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위안부 뮤지컬 제작자 김현준씨가 22일 하버드 강연에서 뮤지컬 제작과 관련된 뒷 이야기를 밝혔다. 김씨는 특히 뮤지컬은 90%가 미국인 후원자의 지원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한국 후원자는 일본 고객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철회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버드 한인 학생회는 하버드대학 필립스 브룩스 하우스 어소시에이션(PBHA)의 팰러 룸(Parlor Room)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해 강연회를 가졌다. 김 감독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보고 2012년부터 이 뮤지컬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가 3년을 준비 한 끝에 작년 7월, 오프브로드웨이 극장인 '세인트 클레멘츠'에서 막을 올린 '컴포트 우먼'은 도쿄에 취직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주인공 '고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11개국 출신의 배우 46명이 이 공연의 무대에 올랐다. 50~70달러로 책정된 시사회 입장권 170장은 매진되었고, 2주간 18회의 공연은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가 공연의 막을 올리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금전 문제였다. 김씨는 제작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의 공연을 지원한 것은 적게는 1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까지 지원해 준 미국인과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지원을 약속했던 한국인 후원자의 대부분은 공연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자 이내 지원 약속을 철회했

다. 일본 기업고객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공연에 참여한 배우중에는 일본인 배우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김 감독에 따르면 한 일본인 배우는 역사는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연을 결심했다. 김 감독 자신도 일본 극우단체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받았다. 일본어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전화가 오거나 공연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이 오기도 했다.

'난징의 강간'으로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가 일본 극우단체의 협박에 자살한 작가 아이리스 장처럼 힘든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더 편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날 강연에는 캘리포니아 그렌데일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거주한미연합의 김현정 씨도 참여하여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미주 한인들의 위안부 알리기 운동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범죄와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라는 점에서 인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강연회를 주최한 하버드대 한인 학생회 공동 회장 최미도 씨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강연회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한국과 관련된 강연을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itshunne@bostonkorea.com



(좌)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소녀상 건립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우)뮤지컬 제작자 김현준씨는 한국인 후원자들이 위안부 뮤지컬 후원을 철회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30여명의 하버드대학 한인 학생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떠오르는 보스턴 인근의 주택 시장 TOP 10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타운들이 있다. 보스톤 글로브 매거진(Boston Globe Magazine)이 최근 주목해야할 매사추세츠 동부지역 북타운 10곳을 공개했다. 특히 2008년 경기 침체로 집값이 폭락한 이후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2005년 매사추세츠 동부지역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465,000이었고,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엔 그보다 13% 하락한 \$407,500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격추이를 보면 매사추세츠 동부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함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부동산 중개인 협회(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주목해야 할 주택 시장 Top 10과 비슷하지만 더 저렴한 근처 지역 또한 눈여겨보자.

(Somerville)이 값비싼 곳이 된 것도 벌써 수 년전이다. 그 계기가 되었던 그린라인 연장공사에 대해 주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이미 이곳의 발달은 어셈블리 스퀘어(Assembly Square)나 데이비스 스퀘어(Davis Square)부터 유니온스퀘어(Union Square)로 이어지는 곳 까지 계획적으로 또한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다. 메이븐 리얼티(Maven Realty)의 매니시 쿠마(Manish Kumar)에 의하면 이곳은 관리가 잘되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살기 좋은 곳이다. “2년 전부터 살던 사람이나 50년 전부터 살던 사람이나 모두 이 지역을 잘 관리하려고 한다.”

서머빌이 좋다면 메드포드(Medford)가 다음 대안이다. 쿠마에 따르면 그린라인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메드포드는 주목해야할 지역이다. 보스톤과 케임브리지와의 접근성, 좋은 행정, 다양성, 활기찬 도심 등의 요소로 평균 단독주택의 가격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463,000로 8% 상승했다.

자메이카 플레인(Jamaica Plain)
 평균 단독주택 가격 \$820,000 (2010년 이후 +59%)
 평균 콘도 가격 \$450,000 (2010년 이후 +39%)

평키하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이 지역에 최근 몇 년간 유모차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포커스 부동산(Focus Real Estate)의 에릭 굴드(Erik Gould)는 “이 지역에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열린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에 노출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오고 있다.” 자메이카 플레인 또한 보스

턴 주변 지역 중에 가장 녹지대가 많은 곳 중에 하나이며, 대중교통이 용이하며, 가게들과 레스토랑이 많고, 풋라이트 클럽 극장(Footlight Club Theater)부터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등의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자메이카 플레인이 좋다면 록스베리(Roxbury)가 다음 대안이다. 보스톤은 자메이카 플레인 근방의 록스베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자메이카 플레인에 비해 도심 근접성이 좋은 록스베리의 평균 주택가격은 \$307,500이다.

케임브리지(Cambridge)
 평균 단독주택 가격 \$1,343,500 (2010년 이후 +56%)
 평균 콘도 가격 \$625,000 (2010년 이후 +47%)

케임브리지는 보행성과 편리한 대중교통, 다양한 가게와 레스토랑들, 하버드대학교와 MIT로 비롯한 학구적인 정체성 등의 요소로 지난 7년간 5번이나 최고의 주거지로 뽑힌 곳이다. 햄몬드 부동산(Hammond Real Estate)의 찰스 셔니(Charles Cherney)는 케임브리지는 유럽적 삶의 퀄리티가 가능한 곳이라 말한다. 대부분의 케임브리지 지역은 저렴하지 않다. 다만 이스트 케임브리지(East Cambridge)지역은 비교적 저렴하며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케임브리지의 대안으로도 메드포드가 물망

에 올랐다. 메드포드 중에서도 TUFITs와 가까운 지역은 알링턴(Allington)지역과 같이 케임브리지에서와 비슷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튼(Newton)
 평균 단독주택 가격 \$1,117,600 (2010년 이후 +50%)
 평균 콘도 가격 \$620,000 (2010년 이후 +54%)

몇몇 주요 고속도로와 가깝고, 평균 가게수입이 미국전역의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이곳은 줄곧 인기가 많았다. 뉴튼 센터 어소시에이츠(Newton Centre Associates)의 마이크 스퍼(Mike Spurr)는 “뉴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90번 고속도로(Mass Pike) 남쪽과 루트 9(Route 9)번 사이의 북쪽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더 저렴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의 타운하우스가 \$900,000이다.”



▶▶9면으로 계속

서머빌(Somerville)
 평균 단독주택 가격 \$725,000 (2010년 이후 +80%)
 평균 콘도 가격 \$561,000 (2010년 이후 +56%)
 한때는 기피하던 지역으로 분류되던 서머빌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lminster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GOLDEN GLOBE REALTY INC.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8면에 이어서

월섬(Waltham)은 뉴튼의 다음 대안이다. 다만, 교통의 근접성과 상업지대의 활발함은 비슷하나, 학군은 뉴튼만큼 좋지 않다. 하지만 집값에서 많은 돈을 아낀다면 그 돈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다. 사립학교를 선호한다면 이것도 생각해볼만한 방법이다.

리비어 (Revere)

평균 단독주택 가격 \$330,000 (2010년 이후 +42%)

평균 콘도 가격 \$289,000 (2010년 이후 +70%)

3.5마일의 기다란 비치를 따라 진행된 개발과 다운타운의 개조로 인해 리비어는 이제 치열한 부동산 경쟁이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보스톤까지 4마일 - 지하철로 단 4정거장. 노스 쇼어(North Shore)와 로건 국제공항(Logan Airport)과의 근접성. 뿐만 아니라 지난 12년간 5개의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풍성해졌다.

리비어가 마음에 든다면 에버렛(Everett)도 고려해볼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 대안은 린(Lynn)이 될 것이다. 린은 리비어처럼 많은 학교가 있지만, 평균 단독주택가 \$266,000로 확실히 더 저렴하다

브루클라인(Brookline)

평균 단독주택 가격 \$1,625,000 (2010년 이후 +40%)

평균 콘도 가격 \$700,000 (2010년 이후 +50%)

좋은 학교와 높은 부동산 가격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루클라인이 그 중 하나다.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등급을 매기는 니치랭킹(Niche Rankings)에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A+를 받으며 매사추세츠 2위를 차지했다(1위는 렉싱턴(Lexington)이 차지했다). 이 지역엔 단독주택이 많이 없고 대부분 아파트와 콘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거의 최고치에 육박한다. 메트로 리얼티 브루클라인(Metro Realty Brookline)의 애덤 우미나(Adam Umina)는 여전히 자메이카 플레인 근처 남쪽 브루클라인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브루클라인의 다음 대안은 브라이튼(Brighten)이다. 평균 가격 \$582,500으로 브라이튼의 특정지역은 브루클라인만큼 매력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하다.

월폴(Walpole)

평균 단독주택 가격 \$505,000 (2010년 이후 +40%)

평균 콘도 가격 \$282,500 (2010년 이후 +15%)



보스톤과 프로비던스(Providence)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월폴은 뉴 잉글랜드(New England)지역의 정수를 보여준다. 굉장한 예스러운 동네면서도 커뮤터레일(Commuter Rail)이 있고 I-95와 495번 도로와 가까운 등, 교통이 편리하다. 질렛 스타디움(Gillette Stadium)과 가깝고 폭스버로우(Foxborough)와 인접해 있는 것도 장점. 활기찬 도심이 있어서 큰 도시에 사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시골

에 사는 기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매스 어더본(Mass Audubon)의 오래된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등 녹지대가 많고 각종 스포츠를 즐기기에 용이하며 좋은 학교가 있다.

폭스보로우(Foxborough) 또한 좋은 다운타운과 학교들, 운동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만 커뮤터레일이 패트리엇츠(Patriots) 게임시즌에만 운행된다.

내틱(Natick)

평균 단독주택 가격 \$555,000 (2010년 이후 +39%)

평균 콘도 가격 \$342,500 (2010년 이후 -7%)

2007년 이후 내틱 몰(Natick Mall) 확장과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개발에도 불구하고 내틱의 부동산 매매는 주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 마을이지만, 빨간 벽돌의 귀여운 메인스트리트,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등과 같은 이벤트, 어더본(Audubon)의 야생동물 보호지역, 내틱 예술센터 등, 이곳에선 지루할 틈이 없다.

홀리스톤(Holliston)은 내틱에서 15-20분 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 495와 가깝다. 내틱과 매우 유사한 이곳은 뉴 잉글랜드의 분위기를 가득 담고 있다.

에버렛(Everett)

평균 단독주택 가격 \$319,000 (2010년 이후 +38%)

평균 콘도 가격 \$253,000 (2010년 이후 +33%)

고속도로 93번과 Route 1 번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머빌의 미스틱(Mystic)강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있다. 산업지대였던 이곳은 노먼 스트리트(Norman Street)를 중심으로 양조장과 증류소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젊은 전문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오래된 기차길과 도시를 관통하는 7마일의 자전거 길과 보트타기와 수영하기에 적합하도록 몰든(Malden)강의 정화 또한 추진되고 있다. 윈 카지노(Wynn Casino)는 올 여름 더 많은 개발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카를로 데마리아(Carlo

DeMaria)는 에버렛 스퀘어(Everett Square)를 좀 더 걸어 다니기 좋은 지역으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 에버렛의 많은 단독주택들은 재단장이 필요하지만 또한 그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라틴계열의 거주민이 주를 이룬다.

대안으로는 린이 있다. 평균 단독주택가격이 \$266,000이다. 혹은 더 도시 중심의 첼시는 \$307,500. 하지만 이 지역들 또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추세다.

콩코드(Concord)

평균 단독주택 가격 \$960,000 (2010년 이후 +37%)

평균 콘도 가격 \$588,250 (2010년 이후 +65%)



깊은 역사성을 가진 이 지역은 절제된 우아미와 함께 지성인과 예술인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다. 콩코드는 "에이리스트(A-List)"라고 애티아스 그룹 부동산(Attias Group Real Estate)의 주르 애티아스(Zur Attias)는 말한다. 콩코드 센터의 하이엔드 소매점과 레스토랑부터 요가와 건강센터가 모여 있는 서쪽 지역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매물이 가능한 곳이다.

콩코드가 좋다면 좀 더 시골스러운 칼라일(Carlisle)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좋은 지역학교와 다양한 운동 팀 및 활동이 있다. 콩코드의 다운타운을 다니기에도 멀지 않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죽상동맥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 고혈압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노인
- ⑧ 정기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관리
- ⑨ 기타 상담, 치료, 건강관리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친환경 차량 이용자들 개솔린 SUV로 돌아서

전기차 이용자 4.8%만 다시 전기차 구입
미국 시장서 SUV 판매량 5년새 22%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보고서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리서치 회사인 에드먼즈(Edmunds.com)는 올해 1사분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기존의 차를 팔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단지 27.5%만이 다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했던 사람들 중 나머지 72.5%는 개솔린 차량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솔린 차량 중에서도 SUV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5년에는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 소유주의 38.5%가 다시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를 구입했다.

2016년 초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 개솔린 SUV를 구입하는 비율은 33.8%로 나타났다. 다시 하

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율인 27.5%와 비교하여 높은 수치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100% 전기로만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의 충성도는 극히 낮게 나타났다. 전기 자동차를 물린 사람이 다시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그러나 에드먼즈의 애널리스트인 제스카 카드웰은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차량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웰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품질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차량은 보통 가장 최신 기술을 장착해 출시된다”며 “단지 낮은 유가 때문에 전통적인 개솔린 차량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에드먼즈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SUV 판매량은 지난 5년 사이에 22%가 증가했다. 그에 따라 자동차 시장 전반에 걸쳐 다른 차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전기차를 타던 사람이 다시 전기차를 구입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보스톤 주민들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마존, 락스버리 포함 보스톤 전지역 당일 배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 회사인 아마존이 락스버리를 포함한 보스톤 전지역에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아마존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자, 곧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스캇 스탠젤 아마존 대변인은 “앞으로 수주 안에 락스버리 지역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며 “진행 중인 작업이 완료되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보스톤 전지역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 아마존은 보스톤 지역의 프라임 회원들에게 당일 배

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락스버리 지역은 제외되었다. 당시 아마존은 당일 배송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의 주문과 수요를 감안하여 서비스 지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6일, 월시 시장이 락스버리가 아마존의 당일 배송 서비스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아마존은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월시 시장은 “아마존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지 않고 우리 이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락스버리를 제외한 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터무니 없는 실수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jsi@bostonkorea.com

JEI 재능교육

SUMMER 2016

PREP COURSE

이전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Math**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과 동일하게 다룹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여름 Java 강좌 입학

weekdays, 9am-noon "온라인 실시간" 수업만 Jr. High High 779.218 - 779.060

향년 12-14, High School 13-16 779.218 - 779.060

문의: 779.218-060

FREE

The registration fee with 10 books

JEI

Learning Centers®

jeiloarning.com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8

TEL: 781.248.0878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주택.펀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2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하버드 볼거리환자 40명, 상황 심각해져

텡스 보스턴 대학에서도 발병, 타주 대학도 발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 보건서비스 폴 바레이라 소장은 최근 하버드 볼거리 환자가 치솟은 것과 관련 첫 발병부터 지금까지 "지금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히고 향후 졸업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5일 하버드 대학에서는 현재 총 40명의 학생이 볼거리 환자로 확진됐으며 약 12명이 현재 격리 수용 중이다. 바레이라 소장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22일 편지를 통해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이래 3일만에 40명으로 급증했다.

바레이라 소장은 "학생들이 극히 조심해서 서로간에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절실하게 알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에라 소장은 볼거리의 급격한 확산은 졸업식 또는 각종 학기말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환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

게 노출되었으며 졸업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그는 밝혔다.

전염성 질병인 볼거리는 침샘에 영향을 주어 턱부분이 부어오르는 것으로 상당히 드문 병으로 여겨졌다. 보통 신입생들은 의무적으로 홍역, 볼거리 예방주사인 MMRV백신을 맞게 되어 있다.

바레이라 소장은 볼거리가 발병 후 한 순간 격리환자가 2명까지 줄었는데 어느새 11명으로 늘어 버렸다고 말했다. 하버드의 정책에 따르면 양성 볼거리 환자는 5일 동안 격리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병환자들은 하버드 인(Harvard Inn) 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머물도록 격리하고 있다.

하버드 보건서비스는 지난 3월 1일 첫 볼거리 환자 발생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발병자 수는 4명, 9명 등 점차적으로 늘었다. 하버드 당국은 봄방학 동안 청결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을 피할 것을 권장했다. 3월 인근 대

학인 텡스와 보스턴 대학에서도 볼거리 환자가 발생했다. 이외에 데이튼 대학, 마이애미 그리고 인디애나 대학 등에서도 볼거리가 발생했다.

봄방학 기간 동안 하버드 대학은 볼거리 환자들을 사생활보호 정책때문에 다른 거주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버드 인(Harvard Inn)에 격리했다.

하버드 볼거리 발병 사건 일지
3월 1일 하버드 대학 2건의 볼거리 환자 발생 발표

3월 3일 하버드 환자 4명 늘어 확진 환자 6명 발표

3월 7일 하버드 대학 및 케임브리지 보건부 하버드 볼거리 감염학생 격리

3월 11일 봄방학 전 하버드 보건당국 환자 9명으로 증가 발표

3월 25일 하버드 대학 총 별고리 환자 16명으로 증가 텡스와 BU에서도 환자 발생

4월 22일 이메일로 하버드 볼거리 환자 34명으로 증가

4월 25일 하버드 볼거리 환자 40명으로 폭증

hsb@bostonkorea.com



보스턴 시가 쥐를 박멸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보스턴 쥐와의 전쟁, 드라이아이스 사용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쥐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보스턴 시가 쥐를 박멸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보스턴 시 인스펙트서비스부 윌리엄 크리스토퍼 장관은 "우리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몇주간 인스펙트서비스부 공무원들은 드라이아이스를 쿨러박스에 담아 가장 쥐가 많은 곳에 이를 투하했다. 장갑을 착용하고 주걱을 이용해 쥐가 드나드는 곳에 드라이아이스를 놓아둔다.

산화탄소가 얼어 고체가 된 형태가 드라이아이스인데 이것이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방출하며 이 가스는 굴안에 든 쥐를 질식사하게 만든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것이 쥐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가며 좀 더 인간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400파운드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했는데 가격은 단지 \$225에 그쳤다. "작업도 너무 단순하고 효과도 즉방이라는 점에서 너무 좋았다"는 게 크리스토퍼 장관의 말이다.

또한 드라이아이스는 쥐약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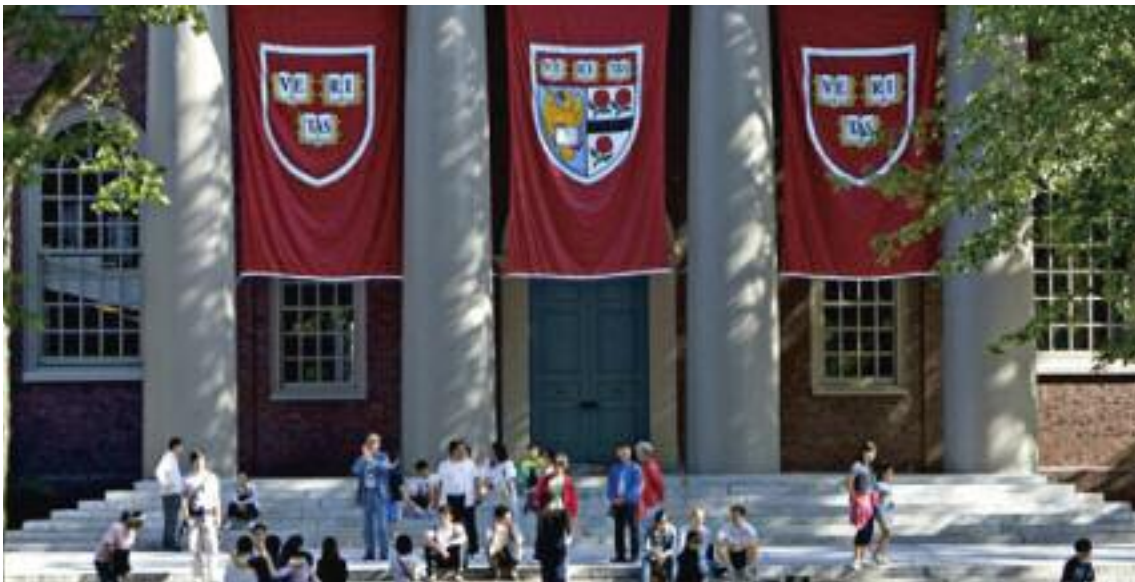
른 동물이나 어린이들에게 가할 위험도 없다. 비록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 화상을 입게 되지만 드라이아이스가 녹을 때까지 공무원들은 이를 점검한다.

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도시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도 보스턴의 쥐박멸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문의해서 이를 도입키로 했다. 보스턴 시는 드라이아이스 박멸법을 지역 대학들이 실험실 쥐를 죽일 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에서 차용했다.

보스턴 시 인스펙션서비스 존 미니 부장관은 드라이아이스 쥐박멸법을 이번 주 시가 주최하는 쥐잡기 회의에서 시범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쥐굴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드라이아이스 박멸법은 큰 효과가 없으며 이 경우 쥐똥과 쥐약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또한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쥐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뚜껑을 꼭 닫아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 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 등 수상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작문대회 수상작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자기나라 말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2세대 자신들의 생각과 미래를 한글로 펼쳐보이다

제목: 나의 자랑스러운 정체성

한라반 김수경 (고급2부문 대상 수상)

한국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독특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이 한글을 모른다면, 아프리카 퍼즐을 맞추면서 사자 조각을 잃어버린 것이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학년 때 한국으로 가족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말은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잘 읽지를 못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지도 읽는 것도 힘들었고, 카페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메뉴판을 읽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사람으로서 한국말을 읽는 것이 잘 안 되어서 슬프고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수경아, 너 한국사람이니깐 이 장남감 껌데기에 있는 것 좀 번역해 줘라"라고 할 때 정확히 번역을 못해서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4학년 때 "수경아, 너 혹시 한국학교 한번 가볼래?"라고 물었을 때 저는 꼭 한국학교에서 한글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학교를 신청했을 때 저는 서예수업도 신청했습니다. 한글 글쓰기는 것과 한국의 많은 글

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기회 때문에 아주 설렘했습니다. 제가 한국사람으로서 결국, 사자 퍼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자 퍼즐만 찾아서는 아프리카 퍼즐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사자 퍼즐 퍼스를 어디에다가 놓는지 알아야지 퍼즐이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학교에서 받아쓰기와 작문 수업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끄적끄적 많은 숙제양을 볼 때마다 저는 포기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한다면 포장을 못 끝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힘든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포기하면 여태까지 힘들게 한 것이 무너질 거라는 그 이유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라톤도 끝까지 뛰어야 진짜로 끝내는 것이다."라고 했지요.

저는 힘들었지만, 한국에 갔던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모아 "나는 꼭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국학교에서 이제 6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한글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필기체도 예쁘지 않고 철자도 많이 틀립니다. 한



국말을 읽는 것도 한국에 있는 동갑 학생들처럼 정확하고 빨리 읽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6년 전에 알고 있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글은 제가 한국사람으로서 제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년 뒤 한국에 여행을 가면 지하철로 쉽게 다니고 카페에서도 마시고 싶은 음료수도 빨리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라는 것은 옛날에 한자를 배울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한글은 제 정체성에 있으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이 됐습니다. 한글을 아는 한국사람으로서 저한테 많은 기쁨과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것은 내 정체성을 찾고 아프리카 퍼즐에서 사자 조각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목: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고려반 서가은 (중급1부문 대상 수상)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 거니?" 하고 어른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저의 어깨는 슬쩍 올라가고, 입은 갑자기 자는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지만,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 저보다 백배 더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그림 그릴 때마다 칭찬을 받는데'라고 생각 한 다음에,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박물관에 화가들이 그린 멋진 그림들을 본 생각을 하고 또 망설여 합니다.

언젠가, "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압니까!"하고 어른들한테 대답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제가 저의 아빠한테, "아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무슨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물어보면, 저의 아빠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잘 벌 수가 있어.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면 돼." 하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이 저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 것을 자그만 걱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



는데, 나보다 잘하면... 나는 크게 비교가 되고 돈을 못 벌잖아!! 그런데 이제는 어른들이,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하고 물어보면 무엇을 대답을 할건지 이제 알겠어요. 어른들이 물어보면 저는 웃으면서, "저는 화가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지 상관은 없지만, 제가 커서 저의 아빠 말대로 제가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되도 되고, 버스드라이버가 되어도 괜찮아요."

이 다음에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면, 저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재미있는 인생중에서 겪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직업을 오래 동안하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Eileen Park (이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섬사짓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은 치과 중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트럼프 "한국, 방위비용 부담 안하면 스스로 방어해야"

외교정책 연설서 '미국 우선' 역설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27일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주장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용 부담을 또다시 촉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미국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익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우선'은 내가 이끄는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세계 2차 대전 이전 고립주의자들의 슬로건을 끌어들이었다. 그는 "우리 외교정책은 완전히 재앙"이라고 주장, 냉전 이후 모든 공화 및 민주당 대통령들의 외교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트럼프는 특히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용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거론하며 "우리 동맹국은 방위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국가들이 방위비용을 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 나라 스스로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냉전시대 방위비용으로 수조 달러가 낭비됐

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 국익을 위해 잘못된 무역협정 파기와 극단주의 이슬람과 이민을 저지하기 위해 NATO의 재정비를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며 다른 나라 재건에 나서고 있다"면서 중동 지역 활동과 대중국 무역적자를 비판했다.

트럼프의 이날 외교정책 연설은 각론에서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이 힘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과 협력하지 않은 채 이슬람국가(IS) 척결 등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jjitan@news1.kr

트럼프 외교정책에 드러난 모순과 오류 5가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27일(현지시간) 외교정책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를 발표하며 자신이 진중한 후보임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이 결여돼 있는데다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조목조목 진단했다.

우선, 트럼프는 이란과 핵협상을 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며 일부 그룹은 "적 이외에는 어느 무엇도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적을 찾아 해외로 보내지 않으며, 과거의 적이 친구가 되고 오랜 친구가 동맹이 될 때 우리가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전세계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 파트너국가들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다시 신뢰할만한 친구이자 동맹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지위를 위해 각국은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

그는 또 "우리는 국가 재건 비즈니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촉진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는 서방의 가치와 기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방의 문명과 성취를 장려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긍정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중동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상호호혜적 관계(two-way street)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무슬림 세계를 분노하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와야 보다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날 트럼프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실패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미국에 개최권을 줄 것인지 몰랐다면 코펜하겐에서 열린 IOC 회의에는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따졌다. 하지만 "따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미 확보된 것을 알면서 날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allday33@news1.kr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27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 칼리 피오리나(왼쪽)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오른쪽)

미 공화 크루즈, 피오리나 '러닝메이트' 지명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27일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트로 칼리 피오리나(61)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 경선에 나섰던 피오리나는 지난 2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후 중도 하차했으며 당시 크루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크루즈는 이날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인디애나주에서 지지들에게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되면 칼리 피오리나가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닝메이트 지명을 받고 연설 단상에 오른 피오리나는 "크루즈 의원의 지명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며 "이번 선거는 우리 당의 신념과 국가 장래를 위한 싸움이다. 나는 평생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고 말했다.

jjitan@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박 대통령, 유체이탈 언론사 간담회 지지율 31%...최저치 또 경신

리얼미터 주간집계...언론사 국장단 간담회 당일 일간 최저치 새누리 지지율 소폭 상승해 1위 탈환...
더민주는 김종인 위안부 발언 논란 등 여파로 2.9% 하락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1.0%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1.0%(매우 잘함 8.7%, 잘하는 편 22.3%)로 나타났다.

31.4%였던 전주보다 0.4%포인트가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63%(매우 잘못함 43.3%, 잘못하는 편 19.7%)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6.0%였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간담회를 한 지난 26일에는 역설적으로 긍정평가가 29.6%(부정평

가 65.%)로 하락했다. 일간 최저치(지난해 1월 27일 29.7%)도 경신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긍정평가가 40%대였던 50대의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39.3%로 30%대로 떨어진 점도 눈길을 끈다.

6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해 53.3%, 보수층의 긍정평가 역시 55.9%로 주저앉았다.

리얼미터는 "북한 도발 관련 보도가 늘며 박 대통령 지지율이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다시 하락했고, 언론사 국장단 간담회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해 28.7%를 기록, 3당 중 1위를 탈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28.6%, 국민의

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25.2%를 기록했다.

더민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당 지도부 개편 관련 갈등,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 발언 논란 등이 지적됐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26.0%),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19.9%), 오세훈 전 서울시장(10.6%), 새누리당 김부성 전 대표(6.3%) 등 순이었다.

이번 주중집계는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60%)와 유선전화(40%) 병행 임의결기(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5.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일간집계는 2일 이동 시계열방식으로 25일 1016명, 26일 1014명, 27일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5일 4.7%, 26일 4.8%, 27일 4.6%다. 표본오차는 3일간 모두 95%로 신뢰수준에서 각각 ±3.1%포인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참고

eriwhat@news1.kr

박 대통령 지지율, 연일 최저치... 정치적 고향 TK도 '싸늘'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4·13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진원지였던 대구·경북(TK)의 민심마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4월 셋째주(18~22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165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각각 31.4%, 63.5%로 2주 연속 2013년 2월 25일 취임 이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수치는 차례로 46.6%, 49.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 첫째주 긍정 42.3%, 부정 45.2% 이후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결과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22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의 집계에서도 비슷했다.

갤럽의 4월 셋째주(19~21일)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

과 긍정 평가는 29%(부정 평가 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다시 보였다. 연말정산과 증세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1월 넷째주·2월 첫째주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중이던 6월 넷째주의 긍정 평가 수치와 같았다.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율은 34%(부정 평가 45%)로 취임 후 첫 30%대이자 역대 최저를 보였다.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연말정산과 메르스 파동 때도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가 40%대를 유지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

이를 대구·경북 지지율이 2014년 4월 첫째주 80%(부정 평가 11%)까지 치솟았을 때와 비교하면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girin@news1.kr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mi Cho (우 초희)



508-641-8924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APRIL 29 - MAY 5, 2016

Roll into Spring with a duck roll. Need to eat healthy fast? Try this quick recipe.

H마트가 소개하는 봄맞이 건강식! 기름을 짝 뺀 혼제오리와 각종 야채를 돌돌 말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 혼제오리 월남쌈을 드셔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Ginger 생강 \$1.29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Kabocha 단호박 \$0.99 lb.	Nagaimo 일본 마 \$3.99 lb.	Israeli Clementine 이스라엘 클레멘타인 \$1.69 lb.
Ume 매실 \$9.99 lb.	Lotus Root 연근 \$1.99 lb.	Fuji Apple 후지사과 \$1.49 l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4-16oz. \$0.99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Sliced Boneless Duck Breast 냉동 구이용 오리 가슴살 \$12.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냉동 바베크용 냉동 삼겹살 \$5.99 lb.
Whole Chicken 통닭 \$1.49 lb.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 lb.
Skin-On Pork Sheet Belly Chunk 편질있는 수육용 삼겹살 \$5.49 lb.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 lb.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Salted Yellow Croaker 자반 굴비 \$6.99 lb.	Red Perch 진짜로 \$1.99 lb.
Masago Seasoned Cafelin Roe 마사고 1.1 lbs./pkg. \$9.99	TONGTONGBAY Bok Kum Anchovy 통통배 볶음멸지 5oz./Medium - pkg. \$5.99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3.99	Half-shelled Mussels 반개 혼합 2 lbs./pkg. \$7.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 \$9.99	ASIAN BEST Jasmine Rice 아시안 베스트 자스민 쌀 25 lbs. \$17.99
스낵 화장지 20rolls/pkg \$13.99	DONGSUH Maxim Coffee Mix 동서 맥신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Mild - 100ct box \$12.99

MOTHER'S DAY SALE

HELLO HOME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Grand Basket \$34.99	Premium Basket \$19.99
CUCHEN 10-CUP RICE COOKER \$589.99	ZOJIRUSHI 10-CUP RICE COOKER \$269.99
KOTO RICE COOKER \$19.99	KOTO RICE COOKER \$24.99

April 29th - May 8th, 2016 at all Hmart NY/NJ Stores

농심 짜왕/맛짱봉 NONGSHIM Zha Wang/Champong Noodle Soup 4.7oz. x 4ea./pkg. \$6.99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Roasted Laver Reg./Parae - 0.7oz x 10ea./box 56fl.oz. \$9.99	SHIRA 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기쿠 참기름 56fl.oz. \$9.99	CJ Dasida Beef Flavor Soup Stock CJ 쇠고기 다시다 2.2 lbs. \$9.99	TONG TONGBAY Mixed Fish Cakes 통통배 생선살 모듬어묵 17.6oz. \$2.99
PENGUIN Canned Boiled Mackerel Pike 펭귄 꽁지 통조림 14.1oz. 2\$5	CJ Bibigo Classic Dumpling/Crispy Potstickers CJ 비비고 물만두/군만두 1.75 - 2 lbs. \$6.9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3 lbs. \$2.99	Q1 Korean Sweet Pancake Mix with Seeds 큐일 씨앗호떡 믹스 12.69oz. \$3.99	NESTLE Green Tea Kit 네슬레 녹차 키트 4.7oz. \$6.99
Global Favorite! 케이타운 메로니/ 고소에 KTOWN Sesame&Coconut/Sweet Melon Cream Cracker 5.64oz. \$0.99	ITO EN Tea Drink ITO EN 티 드링크 All Varieties/67.63fl.oz. \$2.99	셀라비 마스크팩 CELAVI Mask Pack All Varieties/ea. \$2.49 \$0.99	Weeding Hoe 삼각 호미 ea. \$2.49	HELLO HOME Electric Grill KYS-868A/ea. \$29.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한국판 양적완화, 부동산 시장은?...전문가 "제한적 영향"

주택경기 조정국면 "돈 푸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없어"
정책 실현성 낮다 평가도, 주택버블 부작용 고려해야

(서울=뉴스1) 건설부동산팀 =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여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불거진 공급과잉 논란과 글로벌경기 불안으로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양적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간접적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약에 포함된 방안으로 한은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MBS),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보유 채권을 사들여 돈을 유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시중에 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이 이들 채권을 사들여야 한은법 개정이 필요해 정책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양적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 말단까지 유입돼야 한다"며 "큰 밀그림과 실행계획을 잘 짜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도 주택경기가 최근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반짝 호황을 맞았던 주택경기가 글로벌 경기불안과 공급과잉 여파로 조정국면에 접어든 만큼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까지 풀리면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며 "다만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어 양적완화 정책만으로 부동산경기를 견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시장 혼란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장경제에 따라 주택공급과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게 되면 부동산 버블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며 부동산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중 40%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할 정도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결국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양적완화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돈이 주택 가격 버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 역시 "현재 분위기를 보면 양적완화가 이뤄져도 부동산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다"며 "오히려 유동성 증가가 인위적인 부동산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aezung2212@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인사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양적완화 안 언급, 박 무책임하단 의미"

안 "박 대통령 양적완화 뭘지 모를 듯...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다" 품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은 27일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품평' 발언에 대해 해명을 나섰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며,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이고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런 위기 인정과 책임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으면서 양적완화 카

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하다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전날(26일) 오후 경기 양평 환화리조트에서 열린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한국경제의 현황 및 국회의 과제' 강연을 들은 뒤 주변에 함께 앉아 있던 의원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다.

안 대표는 강연에서 언급된 양적완화를 소재로 근처에 앉은 박지원 의원

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뭘지 모를 것 같은데요? 하하하 아우 참..."이라고 말을 건넸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경기부양 정책이다.

옆에 앉은 천정배 공동대표에게는 박 대통령에 대해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 갖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도 했다.

pej86@news1.kr

대통령까지 양적완화 말하긴 했는데...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까지 양적완화를 언급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기업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도 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부양을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다. 그러나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끌어 내리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특정산업의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인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정부 보증채만 살 수 있게 되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필요한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이 출자하는 방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은 한은의 역할과 거

리가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여서 한은도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란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현재는 한은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한은 본연의 역할이란 얘기다.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거듭 나타냈다. 이날 내놓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보성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과장 등은 이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지만 경제 성장에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춰 제로 수준 또는 그 이하까지 끌어내려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 없고 정책여력만 소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jbk8801@news1.kr

청와대 "한국형 양적완화, 구조조정 필요 의해 하는 것"

한은의 산은채 인수·국책은행 증자 등 검토...산은채 인수는 한은법 개정해야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적완화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물지마 양적완화'라며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날(26일) 45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

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에는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인수에 더해 국책은행 증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현재는 정부 보증채만 살 수 있게 되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현재 출자

가능하다"며 "(이는) 재정으로도 가능한데 예산에 반영하려면 내년 예산에 하던 추가경정예산을 하든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는 경우엔 현행법상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구조조정을 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이 관계자는 "대주주의 책임을 고려할 때 경영권 포기 뿐 아니라 사채출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돌보아주실 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요타일과 남편의 일로 보스턴 한인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최혜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 2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편대신 도요타 일을 하며 세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보스톤코리아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를 '돌보아줄 분'을 찾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남편대신 딸 아이가 저를 돌보아 왔는데 아빠의 뜻이 이어가겠다며 한국문학 번역일을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딸 아이가 한국에서 국어국문과 학위를 하기위해 곧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제 곁에 살며 오랫동안 저를 돌보아줄 분이 주변에 계시면 소개해주시고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건은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하셔서 저와 함께 사셔야 하고, 영어소통이 가능 하며, 운전이 가능(차 소유)해야 하고, 영주권 소지자이셔야 합니다. 셀러리는 연봉 \$55000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통화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가내 평안을 빕니다.

yellowchoi@gmail.com
1-781-861-6308

최혜현 드림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SUMMER CAMP

KAYP
 여름캠프
 선착순 24명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KAYP)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안내 합니다.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 (KAYP)는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좀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캠프를 소개합니다.





1. 전통적인 여름 캠프 : 일박이대 오즌 (7/5-7/6)

a.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여름 캠프 입니다. 주제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호수로이며, 도시 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여러가지 야외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b. 큰 배를 빌려 고등어 낚시도 하고, Mr. Major 로 하이킹도 하며, 강과 호수에서 카약킹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4학년졸을 끝낸 남녀 학생입니다.

2. 야구 여름 캠프 : 일박이대 오즌 (7/10-7/10)

a. 중,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야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구 연습이외에는 카약, 하이킹, 양궁등을 즐기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b. 보스톤 지역의 야구 동호회분들의 협조로 진행됩니다.

3. 워싱턴 국제 학교 여름 캠프 (8/10-8/25)

a. 해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워싱턴 국제 학교 학생들이 여름 캠프에 참여 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 째가 됩니다.

4. 미국 스카우트 여름 캠프 (7/19 - 8/10)

a. 고국외 스카우트 남녀 대원 33명이 3주간 "Adventure to New England" 라는 주제로, KAYP Summer Program 에 참여하며, 우리 지역의 미국 브이스카우트대원들과도 교류 할 것입니다.

5. 레딩도 주말 캠프 (8/12-8/14)

a. 구관장님이 이끄시는 레딩도 도장에서 해마다 물레 벨트 주말 훈련을 실시 합니다.

신청: 진태원, 603-205-6679, taewonjin@phoenixbc.com, www.kayp.org

KAYP Main Office: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KAYP Auburn Camp: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어버이연합' 의혹 형사부 배당, 검찰 수사착수...의혹 밝혀질까

경실련, 전경련 수사 의뢰...청와대 행정관은 언론사 고소 등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이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 등 3건의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어버이연합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문을 두드린 사건은 총 3건이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간의 유착 관계를 밝혀달라며 지난 2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횡수,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소득세 납부의무와 탈세 여부 △전경련의 업무상배임 의혹 △이 돈의 공무로 처리 여부 등이다.

또 어버이연합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2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청

년하다)와 천도교청년회, 청년독립군 등 7개 시민단체도 26일 허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경련 자금 지원설, 국가정보원·청와대 집회 지시설 등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JTBC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의 2014년 재단체와 임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제시한 출처가 전경련"이라고 보도했다.

또 어버이연합에 청와대가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거나 국정원에 어버이연합과 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어버이연합 측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청와대에게" 지시받은 적은

없지만 협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경련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 역시 털어놓았다.

abilitykl@news1.kr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커가는 의혹에 입단은 어버이연합...사무총장 잠적

청와대·국정원·전경련 개입 의혹에 침묵 일관 예정된 집회에 회원들 모습 안 보이고 건물주 '방뺄'

(서울=뉴스1) 정재민, 김혜지 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의 집회와 시위 등 활동과 우회 자금지원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청와대,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가운데 정작 어버이연합은 '묵묵부답' 식의 태도로 일관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당초 어버이연합은 25일 오후 2시 30분 의혹 관련 보도를 연이어 내보낸 종합편성채널 JTBC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150명 규모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서울 마포구 JTBC 주위에서 회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버이연합 관계자는 "추 사무총장이 없어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어버이연합은 앞서 22일 서울 종로구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해당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에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연일 언론보도에서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전경련의 자금지원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어버이연합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집회·시위에 청와대 개입? "아는 사이" vs. "지시 안 했다"

지난 22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H 행정관은 올 1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집회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추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추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H 행정관과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을 위해 집회를 한다는 의혹에 대해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과 는 또 다른 입장인 것이다.

청와대 역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지지 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H 행정관과 추 사무총장 사이에 위안부 합의 집회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정황 보도를 놓고 "그 행정관이 '지시가 없었다. 지시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H 행정관은 지난 2013년 국내 최대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가 당선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도 받았다. 따라서 보수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해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현재 추 사무총장과 H 행정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 추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 내부 관계자들과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있다. 25일

현재 추 사무총장의 휴대전화는 착신이 금지된 상태.

◇전경련에서 받은 '우회 자금'은 1억2000만원 이상?

앞서 어버이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협회사업 일부를 진행했다"면서 전경련의 자금이 한 복지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어버이연합 운영에 지원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어버이연합은 각종 집회에 일당 2만원을 주고 탈북자 1000여명을 고용해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논란과 함께 전경련 관련 단체에서 1억2000만원을 받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 관련 조사 과정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이런 가운데 추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경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의 총액이 2억~3억원대 수준이나"는 질문에 "그것보다 많다"고 답했다가 금세 "전경련 후원 자체가 6개월짜리라 총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 당시 전경련에서 우회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지원받은 후원금의 총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국정원과의 '창구'도 존재했다? "탈북자 관리를 국정원에서 해"

지난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유우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단체 관계자 A씨는 국정원과 어버이연합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는 증언

을 했다. 당시 유씨는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재판 도중 A씨는 자신이 모은 증거가 어버이연합을 통해 국정원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에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A씨는 "탈북자단체는 국정원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다"며 국정원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자 김미화 자유민학부모연합 대표는 "탈북자 A씨가 '돈을 쥐야 중국에 가서 정보를 가지고 오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주장해 사비로 500만원을 줬다'면서 '국정원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은 탈북자를 관리하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보교환 때문에 탈북자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A씨가 가져온 정보는 하나도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었다"고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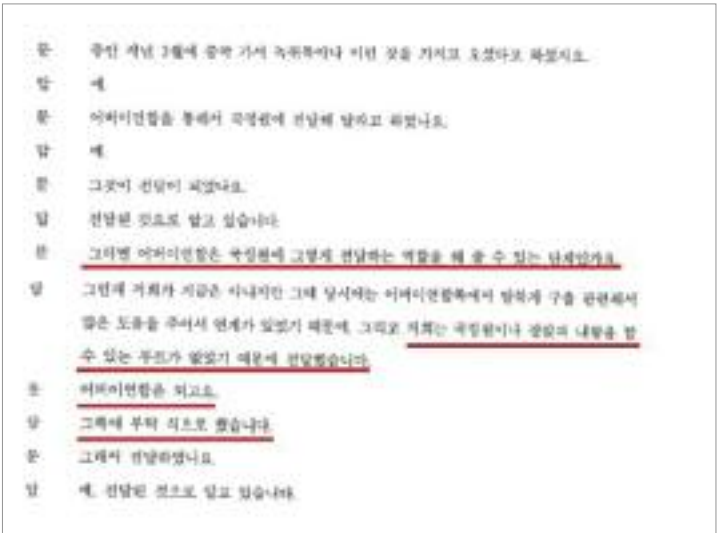
◇건물주는 "나가달라" 통보·예정 집회는 모습 비추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어버이연합은 사무실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렸다. 어버이연합은 현재 서울 종로구의 한 5층짜리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출범한 어버이연합은 이 빌딩의 2층 사무실 대부분을 임대하고 있으며 3층에 있는 사무실 2개도 함께 사용 중이다. 2층은 강당, 3층은 회의실과 일반사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버이연합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자 해당 빌딩 소유주는 논란과 연루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어버이연합 측에 밝혔다.

김미화 자유민학부모연합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소유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면서 "최근 논란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어버이연합과 국가정보원의 유착 관계를 시사한 탈북자 단체 관계자 A씨 법정 진술조서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방지, 피로방, 탄력, 밝은 오븐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도매
홍은희

박 대통령 "가습기 사건 철저 조사, 피해자 구제해야"

(서울=뉴스1) 윤태형, 김수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그런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떤 어머니는 그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된 유해물질이 폐손상을 유발, 지난 2011년 5월10일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34세 임신부가 숨진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9명이 사망하는 등 1500여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일컫는다.

옥시 제품(옥시썩삭 가습기 당면)

사용에 따른 사망자만 109명으로 추산되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6일 신현우 전 옥시대표(68)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어 28일엔 세퓨 전 대표 오모씨와 세퓨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공급한 업체 H사 대표 김모씨 등을 소환했다.

신 전 대표 등은 폐손상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고객이 숨지

거나 상해를 입도록 하는 등 업무상과 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

'포폴리즘'이라더니...정부 '청년공제' 서울시 정책과 닮은꼴

'청년활동지원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비슷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이러고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악마의 속삭임'이라니! 사과라도 하거나 로열티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하루 앞서 정부가 청년취업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공제'를 빗댄 내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를 '포폴리즘'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지원정책을 두고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청년내일공제'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는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당사자 현금 직접지원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취업을 지원할 때 채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을 선호했다. 청년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은 최소화해왔다. 이른바 '도덕적해이', '포폴리즘'과 뚜렷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지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을 보면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노동자 1만명에게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쥐게 해준다.

서울시가 그동안 정부·여당에 "청년지원원은 현금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항변했던 그대로다.

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적립액을 더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식도 서울시 정책과 닮았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프로젝트와도 비슷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을 생활안정까지 확대하면서 내놓은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선보였다. 전국 최초 시도로 매월 5·10·15만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과 민간후원금으로 0.5배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최대 81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우선 '청년내일공제'가 훨씬 몸집이 크다는 점이다.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보다 총액 기준으로 4배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 예산으로 90억원을 쓰면서 '포폴리즘'이라는 비난을 들었는데 이번 정부의 '청년내일공제'는 60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만 따져도 그렇다.

정부의 '청년내일공제'는 취약한 청년을 보조하는 반면 서울시는 실업상태인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차이이다. 그동안 청년단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은 빠졌다. 이것까지 포함했다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부 정책이 청년 당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 "이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놓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변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청년활동지원비를 놓고 본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nevermind@news1.kr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변호사 폭행사건' 폭행에서 '법조게이트'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변호인에 대한 의뢰인의 구치소 폭행사건에서 시작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최모 변호사(46·여) 사이의 갈등이 법조브로커와 전관로비 등이 연루된 '법조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연일 현직 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법조계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변호사의 고소... 사건의 시작과 수임료 논란

사건의 시작은 최 변호사가 지난 22일 "정 대표가 구치소 점검 도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했다"며 감금폭행지상 혐의로 서울중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 중 사임한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아 성공보수를 돌려받고는 착수금마저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 대표와 최 변호사 사이에 오간 수임료를 둘러싸고 최 변호사가 과거 보석석방의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2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다.

정 대표 측은 상습도박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2심 변호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위임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보석석방을 내세우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50억원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건넸는데 보석이 가각되면서 되돌려받은 30억원의 인출 권한 외에 2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변호사 측은 20억원이 착수금이라서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정 대표의 보석 석방과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16개 민·형사사건을 해결하는데 정상적으로 썼고 이 과정에서 20억원을 변호사 30명과 나눠서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대표 측은 27일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을 맡지 않았다"며 재반박했고, 최 변호사 측은 정 대표가 요구하는 사건 처리를 하며 그때 그때 돈을 받았고 서울변회에 이 약정서를 소명자료로 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법조게이트 비화

그런데 최 변호사 측이 정 대표 측에서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변호사 폭행과 수임료 문제를 넘어 법조게이트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 변호사 측은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지인이자 브로커로 알려진 건설업자 이모씨가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 측은 임 부장판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사실을 모르고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며 배당 사실을 알고 바로 재배당을 요청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해명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브로커와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이미 사건 알선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 대표는 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동원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필리핀 정킷방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되기 전인 2014년 검찰은 마카오 도박 혐의로 정 대표를 수사했으나 정 대표는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검사장을 지낸 H 변호사가 포함됐는데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H 변호사가 힘을 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H 변호사는 "문제가 된 호텔 출입기록 등 증거가 없는 사안인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것이지 검찰이 압력을 받아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dandy@news1.kr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Pre-Construction Pricing! ACT NOW!



BROOKFIELD VILLAGE



New Single Family Homes From \$400K's

www.pulte.com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a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at SouthField in Weymouth, MA!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all or visit for information!

877-772-6131



Open Tues.-Sun. 9-5
Mon. by Appt.

**An Exceptional Value
Right Now On New
Single Family Homes!**

Life Tested™ Features

- ✓ Six Spacious 2-4 Bedroom Homes
- ✓ Single Family and Town Home Designs
- ✓ Granite Kitchens
- ✓ Walk to Commuter Rail
- ✓ Master Suites
- ✓ Detailed Interior Trim
- ✓ Nine Foot 1st Floor Ceilings
- ✓ Low Maintenance Living
- ✓ Life Tested™ Designs

WOODSTONE CROSSING

Why rent?... When You Can Own.
Woodstone Crossing



Life Tested™ Features

- ✓ 7 Spacious Floor Plans
- ✓ Luxury 1-2 Bedroom Homes
- ✓ Granite Kitchens
- ✓ Low Monthly HOA Fees
- ✓ Master Suites
- ✓ Detailed Moldings/9' Ceilings
- ✓ Elevator Building
- ✓ Low Maintenance Living
- ✓ Walk to Commuter Rail
- ✓ Minutes from Boston
- ✓ Life Tested™ Designs

Sales Center Open • Tues - Sun 10am-5pm Mon By Appt.

**New Garden Style Condominiums!
Sales Center Now Open!
New Homes From \$300K's**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in Weymouth, MA at SouthField!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www.pulte.com

866-813-7267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ommunity Association fees required. Details available upon request. Offers and price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2016 Pulte Homes of New England LLC.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김형진
781-956-0409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Beds, 2.5Bath, 1960sf.
좋은 학군, 많이 update된 집
넓은대지, open된 실내구조
이현주 401-935-3397



\$67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76sf.
잘 꾸며진 정원, cul de sac,
넓은 master suite, 새 부엌
이현주 401-935-3397



\$650,000
Lexington, MA
3 Beds, 1Bath, 1188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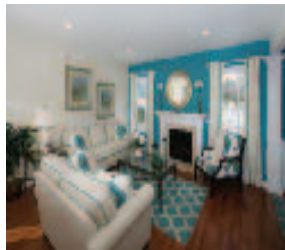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New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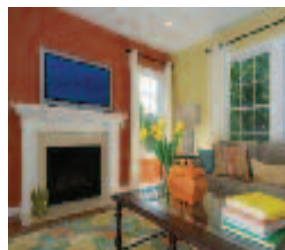


\$359,000
Weymouth, MA
3Beds, 1Bath, 1380 sf.
Central A/C, Sky light
이현주 401-935-3397



콘도/타운하우스/싱글 하우스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콘도 Condominium Rental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0,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275,000
N. Andover, MA
2 Beds, 2 Baths, 1060 sf.
Gina Choi 978-866-3248



\$1,500
Arlington, MA
Fully Furnished Studio,
좋은 교통, 안전한 동네
Hazel Seung 617-895-7676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Michael Yun 617-459-598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00% / 2009년 100% / 2010년 100% / 2011년 100% / 2012년 100% / 2013년 100% / 2014년 100% / 2015년 100% / 2016년 100%



스티븐 손
617-290-0623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Nail Salon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Nail Salon



\$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 매상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

Full Plant Drycleaner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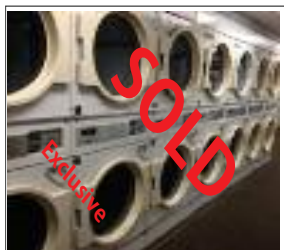
\$915,000
Providence, RI
브라운대학 근처,
with Liquor
이현주 (Julie Lee) 401-935-3397

Restaurant



\$309,000
Allston, MA
한인타운 최적의 위치
Full Size Kitchen
스티븐 손 617-290-0623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프렌차이즈



한국 식당, 카페, 프렌차이즈
세팅 전문
S.J Park 617-304-7001

Business Consulting



센트럴 sq., 하버드 sq.
울스톤, 뉴튼 센타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495,000
Boston, MA
아주 볼비는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309,000
Allston, MA
High Traffic Main Road
Steven Son 617-921-6979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크기
David Kim 781-956-0409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가장 성공적인 패트리어츠의 드래프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 NFL 드래프트를 앞두고 어떤 팀에서 어떤 선수들을 선택할지 분석이 한창이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발한 선수들이 기대 만큼의 몫을 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올해 드래프트를 앞두고 현재 패트리어츠에서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라운드별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 선택으로 불리는 선수들을 살펴보자.

라운드2 - Rob Gronkowski, 2010
랍 그롱코프스키는 NFL에 데뷔한 후 6년 동안 거의 매년 부상을 달고 살았다. 그롱코프스키는 아직 풋볼 선수로서의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 이미 역사상 최고의 타이트 엔드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다. 그롱코프스키가 부상으로 고전했던 2011-13 시즌에 부상 없이 제 기량을 발휘했다면 이미 반박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타이트 엔드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롱코프스키는 6시즌 동안 65개의 터치다운을 성공 시켰다. 타이트 엔드 통산 터치다운 기록으로 2위에 해당한다. 올해 26세인 그롱코프스키가 앞으로 6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터치다운을 기록한다면 12년 동안 130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킨다는 계산이 나온다. NFL

역사상 타이트 엔드 최고 터치다운 기록은 토니 곤잘레즈가 17년 동안 세운 111개이다.

라운드4 - Stephen Gostkowski, 2006

2005년까지 패트리어츠에는 당시에 팀 역사상 가장 일관된 키퍼였던 아담 비나티에리가 있었다. 그리고 2006년에 드래프트로 선발한 스티븐 고스트코우스키는 팀 역사상 가장 일관된 키퍼가 되었다.

지난 3시즌 동안 고스트코우스키는 93%의 필드골 성공률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보였다. 40야드 미만의 거리에서 실패한 필드골은 단 1개만이 있을 뿐이다. 지난 시즌에는 523 연속으로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시켜 NFL 신 기록을 세웠다.

라운드6 - Tom Brady, 2000

탐 브래디를 제외하고 NFL 드래프트를 논할 수 있을까? 4회 슈퍼볼 챔피언, 3회 슈퍼볼 MVP, 2회 NFL 정규시즌 MVP, 현재도 여러 기록을 만들어내는 중이고, 브래디는 미래에 명예의 전당 입성이 당연시 되고 있는 선수다.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평가 받는 브래디는 6라운드에서 선택된 선수다.

브래디는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은 선수는 아니지만 쿼



랍 그롱코프스키는 26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NFL 역사상 최고의 타이트 엔드로 거론되고 있다

터백이 할 수 있는 플레이의 레벨을 한 차원 끌어올린 선수다. 수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판단력에 정확한 패스가 맞물려 브래디는 가장 수비하기 까다로운 패스 공격을 구사하는 쿼터백이 되었다.

라운드7 - Julian Edelman, 2009
브래디 만큼이나 모두의 예상을 깨

고 깜짝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줄리언 에들먼이다. 에들먼은 당초 쿼터백 포지션으로 드래프트 7라운드에 선택되었다. 어떤 팀도 쿼터백 에들먼을 눈여겨 보지 않았지만 패트리어츠는 에들먼에게서 와이드 리시버의 가능성을 보았다.

에들먼은 빠른 몸놀림과 순발력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가능성만 있는 선

수였다. 에들먼은 데뷔 초 패트리어츠에서 와이드 리시버, 펀트 리터너, 코너백 등 다양한 포지션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지금은 패트리어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받고 가장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었다.

jsi@bostonkorea.com

박병호 '135m' 5호포 · 오승환 1⅓이닝 퍼펙트

(서울=뉴스1) 이재상, 김지예 기자 = 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30)가 시즌 5호 홈런을 터트리는 등 2타점을 수확했다. '끝판대장'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결정적인 순간 마운드에 올라 완봉투를 선보였다.

박병호는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출전, 4-6으로 뒤지던 6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박병호는 이날 홈런 1방을 포함해 3타수 1안타(1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전날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박병호의 올 시즌 성적은 0.241 5홈런 7타점이 됐다.

박병호는 첫 타석부터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다. 1회 1사 2,3루에서 상대 선발 조쉬 톰린의 공을 받아쳐 큼지막한 우익수 플라이로 3루 주자를 불러 들였다. 박병호의 빅리그 6번째 타점이었다.

4회에 3루 땅볼로 물러난 박병호는 4-6으로 뒤지던 6회 홈런포를 터트렸다.

6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박병호는 톰린의 85마일(약 137km)짜리 커터를 받아쳐 대형 홈런으로 연결했다. 구단 공식 발표에 따르면 박병호의 홈런은 비거리 444피트(135.3m)였다. 지난 20일 시즌 4호 홈런을

뽑아낸 뒤 5경기 만에 나온 박병호의 시즌 5호 홈런.

하지만 박병호는 7회말 2사 만루의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5-6으로 추격하던 7회말 주자 풀베이스의 찬스를 잡았지만 2볼 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높은 직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미네소타가 5-6으로 패했다. 미네소타는 15패(7승)째를 떠안았다.

세인트루이스의 불펜투수 오승환도 3경기 연속 무실점의 역투를 펼쳤다.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6회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1⅓이닝 동안 2탈삼진 무실점 퍼펙트 투구를 선보였다.

지난 2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부터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를 펼친 오승환의 평균자책점은 1.69에서 1.50으로 낮아졌다.

오승환은 7-4로 앞선 5회말 1사 1,2루에서 등판해 야스마니 토마스를 투수 땅볼로 돌려세웠고, 웰링턴 카스티요를 헛스윙 삼진으로 막아냈다.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승환의 강심장이 돋보였다.

오승환은 10-4로 크게 벌어진 7회말에도 마운드에 올라 2타자를 처리하고 마운드를 조나단 브록스톤에게 넘겼다. 세인트루이



박병호(30)가 2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터트렸다

스는 이날 11-4로 완승을 거뒀다.

'빅보이'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도 빅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투수를 상대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고,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이대호는 시애틀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1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이대호의 타율은 0.286에서 0.280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대호는 3-5로 추격하던 6회 2사 1루에

서 좌익선상 방면으로 타구를 날렸고, 1루까지 전력 질주해서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시애틀은 휴스턴에 4-7로 패했고, 3연승 행진이 끊기면서 11승10패를 기록했다.

반면, LA에인절스의 최지만(25)도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9번 지명타자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3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다.

최지만의 타율은 0.111에서 0.083(12타수 1안타)으로 하락했다.

alexei@news1.kr

ACN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데저트: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65
office.l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사랑의 길입니다 (행 1:14)

주일예배 / 오후 2:00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30
영양/영양/초경/영고공부대회/영영부모영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담당 목사 / 무사영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28에서 15분 거리

유재부: 밀알교회 목사
유남부: 밀알교회 목사
유소: David W. Kim 목사
유영/유진: Erika Kim 목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시
주일 학교	오전 10시
전도인 공부	오전 4시
목요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2404
www.bostonumc.org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영고공부: 오후 2시 | 대각부모영: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Do you have Sunny Roof?
Call now to see quality for Solar Panel!

- No cost to you.
- Have your own power house at home.
- Cut your electric bill dramatically.
- Help environment

No.1 in US
SolarCity

Kevin Yoon, Energy Consultant(한국어가능)
TEL: 878.500.4735
EMAIL: kyoon083@yahoo.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함께 사랑의 삶을 나누어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감사 사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나눔, 부패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영성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성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영성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공품향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귀 케이크
- 국나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Elegy for the Fallen, Light beyond the Abyss

music and poetry of solace and resilience

망자를 위한 애가 - 심연 너머에 빛

CHRISTINA CHEON YOUNG BAE DOYEON KIM CLERA RYU CHASE MORRIN & THE JAYU QUARTET

BACH BLOCH GRANADOS IRINO JUNG KIM MORRIN PIAZZOLLA WHITACRE

4.30 Sat. 7 PM
St. Paul's Church, 15 Saint Paul St. Brookline

TICKETS & INQUIRIES
www.koreancultureboston.org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서울설렁탕의 미션, 곡물, 보양, 유혹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ostonBar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희와 최희의 손끝엔 지리없는 복귀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8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짜마 20불 부터
디자깅 130불 부터/개국된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영: 양구경, 김영남, 미운실, 뜻제호별, 마리, 대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은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백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율/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인간개발연합회	401-481-4900
한국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978-844-2404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781-534-3394	
말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톤 교회	508-799-4488
위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 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정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전차/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650
뉴티즈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순옥유니부동산	508-734-044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비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멘셜(이호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븐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송민근	617-696-7600
해버드방(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상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란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켄지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클리닉(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중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최신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4/29
웨스트보로한국식당에서 일하실
웨이터 및 웨이추레스 구함.
T. 508-366-8898

4/29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4/29
헤어 & 그레이스 살롱에서
미용사 및 네일텍 구함.
(플레밍햄 지역) T. 508-879-7777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5/13
중고 공업용 미싱 샵니다.
T. 781-595-924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ail Salon for Sale

8 Tables, 8 Chairs, 1 Bar
Price: \$300K
Location: Plymouth
T. 774-269-4361 (Kieth)

4/22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2/26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ax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c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7
Hrabc118@gmail.com

보스톤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옥중화' 이병훈 PD "새로운 도전, 항상 떨리고 부담돼"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이병훈 감독이 '옥중화'로 오랜만에 연출에 나서 는 소감을 밝혔다.

이병훈 감독은 2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MBC 새 주말 드라마 '옥중화'(극본 최완규 / 연출 이병훈) 제작발표회에서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기 에 앞서 항상 떨리고 부담스럽고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안하게 먹고 사는 직업도 많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하는 직업 이 행복한 직업인가 생각을 많이 했다"며 "시 청자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실 때는 힘이 솟아서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또 이병훈 감독은 "늘 새로운 소재, 새로운

드라마를 갖고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 다. 드라마 '허준'하고 비슷하지 않냐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하려고 선택을 했다. 최완규 작가와 2년 반동안 고생을 했다. 나름 노력을 다했으니 예쁘 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옥중화'는 옥에서 태어난 천재 소녀 옥녀(진세연 분)와 조선상단의 미스터리 인 물 윤태원(고수 분)의 어드벤처 사극이다. 또 지난 1999년 '허준'과 2001년 '상도'의 흥행을 만들어 낸 '히트 제조기' 이병훈 감독과 최완규 작가가 16년 만에 이기투합해 방송계의 이 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하 사극이기도 하다 . 오는 30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아가씨' 네 男女의 은밀한 관계

김민희 · 김태리 · 하정우 · 조진웅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제69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귀족 아가씨와 사기꾼 백작, 하녀 , 그리고 후견인의 관계 포스터 6종을 공개했다.

27일 공개된 영화 '아가씨'의 관계 포스터는 귀족 아가씨와 사기꾼 백작, 하녀, 후견인까지 서로 다른 목적을 감춘 매혹적 인물들의 이슬아슬한 관계와 욕망을 배우들의 강렬한 표정과 영화 속 대사를 통해 담았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지만 부모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자라 온 귀족 아가씨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매력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녀의 귓가에 "내가 꼭 그분하고 결혼하면 좋겠어?"라고 속삭이다가도 자신에게 유혹의 눈빛을 던지는 백작을 향해 "당신이 싫어요"라며 거리를 두는 아가씨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여기에 아가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백작과 거래를 한 하녀는 "가엾고도 가엾구나... 가짜한테 맘을 뺏기다니"라는 속내와 함께 아가씨를 껴안은 채 안타까움 어린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 흥

미를 더한다.

신분과 목적을 감추고 아가씨에게 접근한 사기꾼 백작은 "우리 동네에서 순진한 건 불법이거든요"라는 위트 있는 대사와 자신감 넘치는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젠틀한 모습을 벗어 던지고 하녀를 거칠게 대하는 백작과 이에 굴하지 않는 당찬 하녀의 모습은 이들이 빚어낼 팽팽한 연기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지하실을 생각하렴"이라고 아가씨에게 은밀한 경고를 전하는 후견인은 압도적 존재감으로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가짜와 진짜, 사기와 사랑을 줄타기하듯 오가는 매혹적 인물들의 모습이 담긴 관계 포스터는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조진웅까지 강렬한 개성을 품은 배우들의 생생한 매력이 더해지며 영화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것이다.

박찬욱 감독과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조진웅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이 완성한 매력적 캐릭터와 팽팽한 스토리, 매혹적 볼거리가 있는 '아가씨'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옥씨남정기' 연정훈부터 김숙까지.. 특급 카메오 활용법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옥씨남정기'가 다양한 카메오 출연으로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매주 금, 토요일 저녁 8시30분 방송되는 JTBC '옥씨남정기'는 현실공감 스토리뿐 아니라 드라마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준 특별출연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메이비부터 연정훈까지 그동안 '옥씨남정기'를 빛내준 카메오 명단은 화려하다. 실제 남편 윤상현을 지원사격해준 내조의 여왕 메이비를 시작으로 이정진, 김숙-윤정수, 도희, 연정훈, 홍석천까지 '옥씨남정기'에 특별출

연한 스타는 무려 7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옥씨남정기'는 극에 카메오를 잘 녹여낸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다. 화려한 카메오 군단은 각기 다른 캐릭터로 열연하며 극에 양념을 뿌려줬다.

'옥씨남정기'가 또 한명의 카메오 출격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이번에 '옥씨남정기'와 함께 할 카메오는 가수 치타로, 러블리 코스메틱 화장품 모델로서 개악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원조 걸크러쉬 치타와 '썸 언니' 이요원의 만남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시간이탈자' 박스오피스 1위...100만 돌파 눈앞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영화 '시간이탈자'(감독 박재용)가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영진위 통합전산망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탈자'는 지난 24일 7만429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현재 누적 관객수는 93만3015명으로 지난 13일 개봉한 '시간이탈자'는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시간이탈자'는 1983년을 사는 남자와 2015년을 사는 남자가 서로의 꿈을 통해 마주하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벌이는 스틸러 장르로 이진욱, 이수정, 조정석이 출연한다.

nahee126@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4월 18일 ~ 2016년 4월 24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6.8%
2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6.5%
3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20.9%
4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9.1%
5	KBS1	KBS9시뉴스	17.9%
6	KBS2	공사창립특별기획(또만나요태양의후예스페셜1)	17.7%
7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15.7%
8	MBC	무한도전	14.3%
9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4.1%
10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3.7%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3	SBS	TV소셜(내 마음의 꽃비)	
4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6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7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8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9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0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02	봄이 좋냐??	10cm
03	Toy	블락비
04	사랑에 빠졌죠 (당신만이)	장범준
05	넌 is 뭔들	마마무
06	어디에도	엠씨더맥스
07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8	너는 나 너는 너	지코 (ZICO)
09	너도 (Feat. Cha Cha Malone)	로꼬
10	같은 곳에서	소녀온탑

숫자 퍼즐 (Sudoku)

6				9	8	7	1	2
3	8		7					
	9			4				
								5
	1		5		2		4	
4								
				5			7	
					1		8	4
2	7	8	4	6				9

5월 1일 - 5월 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한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p> <p>●운수: 한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올 상황들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전: 급한 마음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지혜롭게 피해야 하겠습니다. ●애정: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 7일 길일. 1, 3일 주의.</p>	<p>소띠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p> <p>●운수: 주위의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샘솟게 됩니다. ●금전: 일처리가 순조롭게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자금회전도 잘 되어갑니다.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위와 함께 나눌만한 기본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 6일 길일. 1, 4일 주의.</p>	<p>범띠 한 발 양보하고</p> <p>●운수: 누군가와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본시 남의 손에 쥐어 있는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이번에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4, 6일 길일. 2, 5일 주의.</p>
<p>토끼띠 충분히 누리도록</p> <p>●운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세요. ●금전: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많지만 현상유지는 됩니다. ●애정: 뻘하고 흔한 말은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 마디가 더 와 닿게 해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p>	<p>용띠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p> <p>●운수: 언젠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하세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애정: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도 크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p>	<p>뱀띠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p> <p>●운수: 모임이나 회식자리에 갈 일이 있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쉬우니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감정싸움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유리하지 않으니 피하게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p>
<p>말띠 사랑이 쓸쓸 무르익고</p> <p>●운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화가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의욕이 샘솟고 능률이 오르면 평소보다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얻는 것도 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사랑이 쓸쓸 무르익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 4일 길일. 6, 7일 주의.</p>	<p>양띠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p> <p>●운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애정: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5일 길일. 4, 7일 주의.</p>	<p>원숭이띠 백문이 불여일견</p> <p>●운수: 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훗날에 도움이 되는 인심을 얻게 됩니다. ●금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애정: 밖에 일만 신경을 쓰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합니다. 집안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와 체면이 손상되거나 구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 6일 길일. 5, 7일 주의.</p>
<p>닭띠 환한 기운이 맴돌고</p> <p>●운수: 힘들게 하던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그동안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대해서도 환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금전: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는 매상이 증가하니 신이 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일과 사랑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7일 길일. 3, 6일 주의.</p>	<p>개띠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p> <p>●운수: 상대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부딪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손을 떠나는 돈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4일 길일. 1, 7일 주의.</p>	<p>돼지띠 중심을 잘 잡아야</p> <p>●운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 번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견줄 수 없게 됩니다. ●금전: 절약을 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 미리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6일 길일. 2, 5일 주의.</p>



'무한도전' 잭키 마지막 이야기 이재진 일상부터 공연까지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의 '토토가2-잭키스'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2-잭키스' 편에서는 '모난 4차원'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로 큰 웃음을 준 이재진의 일상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재진은 녹화 당시 유재석 인물을 뛰어넘는 평소의 그림 실력은 물론, 하나 뿐인 여동생 이은주와 식사를 하며 서로를 살갑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재덕과 함께 사는 H.O.T. 멤버 토니가 출연, 함께 활동했던 당시 잭키스와의 추억을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 그는 이번 잭키스 완전체 재결합을 부러워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본 공연에 앞서, 지난 2000년 연예계 은퇴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고지용과 잭키스 멤버들의 첫 만남도 볼 수 있다. 16년 만에 만난 6명은 어색함도 잠시, 마치 활동 당시로 돌아간 듯 장난을 치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특히 해체 이후 처음 만난 은지원과 고지용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으며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당일 잭키스 공연 소식을 듣고 삼암 월드컵 경기장에 속속 도착한 팬들은 노란풍선과 우비, 당시 플래카드를 들고 와 서로 추억을 나누며 잭키스를 기다렸다. 당시 교복차림이었던 10대 소녀들은 어느덧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아이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아 추억 여행을 함께 했다.

aluem_chang@news1.kr

'복면가왕' 음악대장X하현우 '故신해철'이란 연결고리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복면가왕' 음악대장과 그의 정체로 지목되고 있는 국카스텐 하현우의 공통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악대장은 지난 24일 오후 4시50분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 고(故) 신해철의 '일상'으로 초대로 무대를 꾸몄다. 그는 그동안의 폭발적인 고음과는 상반되는 묵직한 저음으로 관객을

압도했고 '복면가왕' 최초 7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누리꾼들은 음악대장의 가창력과 음색, 청량한 고음 등을 두고 그의 정체가 국카스텐의 하현우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하현우는 과거 인터뷰에서 "4옥타브 도까지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음악대장은 '복면가왕'에서 신해철의 노래만 총 3곡을 불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민물장어의 꿈', '라젠카, 세이브 어스', '음악으로의 초대' 무대로 매년 신해철에 대한 향수와 함께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현우 또한 마찬가지다. 신해철은 생전에 국카스텐을 가리켜 "한국 록의 후계자"라고 칭찬했고 국카스텐 또한 평소 무대에서 신해철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아왔다. 이에 음악대장의 정체가 정말 하현우인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ahee126@news1.kr

'라스' 차태현 "송중기와 술마신 아내, 동네아줌마들 부러움 쏟아져"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차태현이 송중기의 인기를 실감한 일화를 공개했다.

27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는 차태현, 배우, 최진호, 빅토리아가 출연한 '팬이 됐어요'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차태현은 "저희 아내 마음이 금방 바뀌는 걸 오랜만에 봤다. 박보검에게서 송중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아줌마들도 그렇더라. 박보검 얘기를 하다가 언제부터가 안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아내와 집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고창석 형과 송중기가 와서 합석을 했다. 그때 아내에게 '부럽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등의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났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lee1220@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0498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정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렛미홈' 공감+감동 다 잡은 新 '집방' 탄생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렛미홈'이 공감도를 높인 감동 집방으로 베일을 벗었다.

'렛미홈' 첫회는 시할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4대가 함께 사는 주부의 사연으로 꾸며졌다. 신청자의 집은 좁은 집에 여러 살림이 더해져 수납 공간이 태부족이었고 하나의 화장실을 온가족이 함께 쓰고 있었다. 환기가 되지 않아 온집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천장 누수로 위생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집이었다.

신청자는 결혼 전부터 예쁜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컸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쓰던 가구를 물려 받고 자신이 꾸민 살림살이 하나 없이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효심 깊은 신청자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시할머니가 아끼던 자개장을 디자인으로 활용해 경대로 만들어 준 점, 좁은 집의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해 식탁에 레일을 달아 주방은 물론 거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 준 점, 부부의 방에는 '공간 속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남편이 서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배려와 센스가 넘치는 방법 같은 인테리어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자아냈다.

reddgreen35@news1.kr

티보플레이 4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3 | KBS |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 4 | KBS | 아이가 다섯 |
| 5 | MBC | 가화만사성 |
| 6 | MBC | 그래그런거야 |
| 7 | MBC | 내일도 승리 |
| 8 | MBC | 아름다운 당신 |
| 9 | SBS | 천상의 약속 |
| 10 | MBC | 결혼계약 |

티보플레이 4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렛미홈 |
| 2 | SBS | 따따라 |
| 3 | CJ E&M | 신서유기2 |

티보플레이 4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대배우 | 오달수, 윤제문 |
| 2 | 동주 | 강하늘, 박정민 |

'신서유기2' 은지원, 레고에 집착 "이것만 봐도 배불러"

(서울=뉴스1스타) 김유진 기자 = '신서유기2' 은지원이 장난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지원은 26일 방송한 tvNgo '신서유기2'에서 경품이 걸린 '브랜드 퀴즈' 게임에 참여했다.

이날 경품에는 은지원이 좋아하는 레고를 비롯해 껌, 컵라면, 메모리 칩 등이 걸려 있었다.

은지원은 무엇을 가장 갖고 싶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당연히 레고를 지켜야 한다. 밥 안 먹어도 된다. 이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애정을 드러내 폭소를 자아냈다.

이때 이수근이 레고를 가리키며 "이런 건 빼도 된다. 개인 용품인데 먹을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자 은지원은 "안 된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oodinee@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 1. Full Plant 플랜트 : 맥심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SOLD**
- 2. Full Plant 세막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막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중매** 4. Full Plant 세막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6. 드림오피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8. 드림오피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 인근 아파트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9. 오피스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6,498~~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son park, Wellesley **SOLD**
- 10. Condo : 20 Hoern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2. 미발 식물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NEW LISTINGS



콘도
47 Homer Ave, Unit F-3
Cambridge, 2Bed 1Bath 1kitchen
좋은 위치, 하버드 스쿨에서 페스로 10분.
Asking **\$429,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1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4회

'배꼽 맞추기'의 비밀...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옛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말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해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이 하나인 까닭은 말의 신중함과 뱉어낸 헛된 말의 결과를 일깨워주려 한 것이다. 또한, 귀가 두 개인 까닭은 남의 말을 신중히 듣고 경청(敬聽)하라는 것이다. 경청(敬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한자풀이로 '공경 경(敬)'자와 '들음 청(聽)'으로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들음을 말한다. 경청한다는 것은 서로 반듯하게 마주하고 눈을 맞추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다.

경청 / 정현중

불행의 대부분은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비극의 대부분은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듯
아, 오늘날처럼
경청이 필요한 때는 없는 듯
대통령이든 신(神)이든
어른이든 애이든
아저씨든 아줌마든
무슨 소리이든지 간에
내 안팎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세상이 조금은 좋아질 듯.

모든 귀가 막혀 있어
우리의 행성은 캄캄하고
기가 막혀
죽어가고 있는 듯
그게 무슨소리이든지 간에,
제 이를 뒤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경청할 때
지평선과 우주를 관통하는
한 고요 속에
세상은 행여나
한 송이 꽃 필 듯.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저자 박승호 목사의 '공감소통대화법'이란 주제로 한국에서 네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사모님 그리고 LA에서 오신 한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렉싱턴 소재 성요한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조상현 목사, 김은경 전도사)에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아침 9시~ 밤 9시 30분까지)에 평신도들 위주의 강의와 이번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의 2박 3일에 걸친 강의를 있었다. 요즘 들어 더욱이 진중한 대화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가족이나 친구 그 어떤 관계에서든 서로 말은 오가는데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더러 있다. 무엇보다도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어야 함을 이번 강

연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의 그 감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을 마주하고 집중하며 귀로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입으로 들으며 상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식하며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게 된다. 속이 답답한 이의 이야기를 곁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며, 그 마음에서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들고 칭찬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듯 마음 따뜻한 서로의 칭찬은 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을까. 서로를 살리는 일이다. 그것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다. 바로 사랑인 것이다. 이렇듯 처음에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머문 그 따뜻한 마음을 내어놓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면 서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이며 오랜 기다림과 견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 배려한다

고 하면서도 제대로 공감된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남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간에 상대방의 얘기에 경청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얘기를 제대로 들었을 리가 있겠는가. 또한, 그러하니 공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공감이 어려웠으니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리가 없다. 늘 그랬듯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흘려보냈던 어리석음을 이번 '공감소통 대화법'의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모여 나눠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존재가 그 어디에 하나 있을까. 모두가 창조주가 만들어놓으신 결과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뒷걸음질 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숨어들지 말고 창조주가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서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 일 바로 우리가 모두 귀한 존재로서 사는 것이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서로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산너머 남촌에는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봄이 한창이다. 봄엔 꽃이 있을진대, 봄노래와 어울린다. 소리 높지 않아도 된다. 콧노래도 좋다는 말이다. 그윽하지 않은가.

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아 꽃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익는 오월이면 보리내음새
어느 것 한가진들 실어 안오리
남촌서 남풍불때 나는 좋데나
(김동환 작시, 김동현곡, 박재란 노래)

한국인은 타민족에 비해 노래를 잘 한다. 타고난 핏줄인 모양이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한국엔 골목마다 노래방이 즐비하니 그걸 증명한다고나 할까. 하지만, 나는 노래라면 쟁쟁하다.

오래전 이야기이다. 남자교인이 절대 부족한 교회였다. 성가대를 꾸렸는데, 당연히 남자파트가 약했다. 성가대 지휘자가 나를 불렀다. '성가대에 앉아 베이스를 맡으라.' 부탁이던 강요였다. 꼬득임이 이어졌다. '옆에 앉을 장로님만 따라 소리내면 된다'. 망서림없는 내 변명이다. '난 뻥속까지 음치' '난 모태 음맹' '난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 주섬주섬 주워삼겼다.

그러저러 견딜만 했다. 겁없는 자신감도 덩달아 자라났다. '이것 그닥 어렵지는 않군.' '그럼 그럼 내 목소리는 원래 나쁘지 않아' '어려서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야' 스스로 위안과 오해가 총만해져 갔다. 하긴, 바로 옆자리 베이스 장로님을 따라 부르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으랴. 하지만 장로님,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베이스는 죽고 너무 고요

해졌다. 입도 뻥긋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날은 크리스마스이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되는 거다. 간간히 화음을 만들지 못하는 괴음怪音이 섞이면서 몇달이 흘렀다.

지휘자는 원래 성질 더럽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성가대 지휘자는 달랐다. 겸손했고 조용했으며, 격려를 아끼지 않던 분이였다. 현대, 이 양반이 내게는 별 말이 없었다. 잘하네 못하네 그런 이야기도 없었던 거다. 하긴 뭐 잘한 일이 있을까만, 그런가 보다 했다. 성탄절이 가까워 왔다. 지휘자는 성탄 칸타타를 탐냈다. 나야 칸타타가 얼마나 고난도의 곡인지 알턱이 없다. 연습이 시작됐다. 당구삼년 음풍월이었다. 내게는 음치 성가대 삼개월에 성향칸타타 합창에 당당히 기여할 가당치 않은 자신감이었던 거다. 음정이 맞으면 다른 파트와 어울려 듣기에 버거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귀에서 공명이 되는걸 알아갈 즈음이다.

한참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지휘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휘자 마음에 들지 않는 뜻이다. 부드러운 성미에도 열 받았던 모양이다. 설마 했는데, 벌개진 얼굴로 그가 나를

올려다 봤다. "김집사, 그 부분에선 소리를 내지 마세웁! 입만 벌리며 소리내는 척만 하세웁!" 뭘 고치라는 말도 아니다. 소리내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헛된 자신감이 넘쳐 내 소리가 불협으로 갔던 거다. 철렁. 날벼락에 심장이 떨어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실감했다. 자신감의 유체가탈현상이었던 거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내가 아니다. 큰소리로 응수했다. 노래는 소리 못낼 명정 대답은 우렁찼다.

그 이후로 상처(?) 받은 영혼은 더 이상 소리내어 노래할 수 없었다. 입은 있으나, 소리 없는 아우성된거다. 무성영화에, 비주얼만 있었던 게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내 목소리 없어도, 연주후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상에 이런 이런. 내 목소리 없이도 성가대의 연주가 대 성공이러니. 웃어야 하나.

봄바람이 시와 노래를 만든다. 봄바람으로 치유받는다. 남풍 불때 콧노래 하시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이다 (시편 96:1)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경쟁과 속도로부터 해방되거나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 새처럼 갇혀있지 말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날개를 펴보십시오. 어둡거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기의 창을 열고 나설 때, 자기가 찾는 이상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말자취” 중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60년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올해 봉축법요식은 토요일에 열립니다.)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특별행사: 오후 2시 이후, 장수촬영(영정사진촬영).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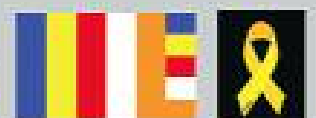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불자님과 함께하시길...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SUSA TEMPLE
사건스리유기이원단도당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4. 제로니모와 나바호의 천리 길 (3)

그랜트 요새 대학살 (계속)
인디언들을 혐오하여 어찌해서라도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백인들에게 이 평화로운 마을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휘트만 중위는 이 마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아파치 요새에 새로 조성된 화이트마운틴 인디언 주거지역으로 옮겨갈 것을 에스키민진(Eskiminzin) 추장에게 권했으나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다.

1871년 3월 7일과 29일 사이에 아파치 인디언의 습격으로 백인 정착민 19명이 피살당하고 1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불상사는 아라바이족 인디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산(Tucson)의 백인 거주자와 신문들은 피날과 아라바이족 인디언들의 소행이라고 헛소문을 내었다. 투산의 백인들은 회합을 가지고 이 기회에 그랜트 캠프의 인디언 마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다. 4월 28일 아침에 파파고(Papago) 인디언 용병 94명을 데리고 6명의 미국인과 42명의 멕시코인이 투산을 떠나 인디언 캠프로 향했다. 파파고 인디언은 피날 아파치와 아라바이족 인디언과는 오랜 숙적관계에 있었다.

4월 30일 새벽에 투산 일당은 피날 인디언과 아라바이족 인디언의 캠프에 들이닥쳤다. 파파고 인디언 용병이 공격의 선봉에 섰다. 피날 인디언과 아라바이족 인디언은 이미 무기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백인에 대한 습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전혀 뜻밖이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사냥하러 산속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였다. 125명이 살해되었고 약 30명의 아이들이 파파고 용병에게 붙잡혀 가서 노예나 종으로 팔렸다. 에스키민진 추장도 그 캠프에 있었으나 운 좋게 현장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휘트만 중위가 투산 일당들이 인디언 캠프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해 보니 이미 상황은 다 끝난 상태였다.

대학살 소식이 동부에 알려지자 많은 양식 있는 미국인들이 크게 분개하였으며 그랜트 대통령은 살인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약 100명이 기소되어 대배심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5일간의 심리 끝에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투산에 사는 백인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살아남은 인디언들 중 상당수는 다른 부족에 합류하여 백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게릴라 전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연방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남부 인디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인디언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 있는 크록 장군을 애리조나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인디언문제 담당국의 콜리어(Vincent Colyer) 특사를 그

랜트 캠프로 파견했다. 콜리어는 우선 에스키민진을 만났다. 다음으로 콜리어는 톤토 아파치족 추장 델사이(Delshay)와 치리카우아 아파치족의 코치스 추장도 만나고 싶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크록 장군도 코치스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치리카우아 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코치스는 뉴멕시코로 빠져나가버려서 만나지 못했다. 코치스는 뉴멕시코 사령관인 그레이저(Gordon Granger) 장군에게 엘라모사(Canada Alamosa)에서 회담을 갖자고 연락을 보냈다. 양측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레이저가 인디언 주재소를 엘라모사에서 모골론산(Mogollons)에 있는 툴라로사(Tularosa)로 옮기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한 데에 대하여 코치스는 엘라모사에 그대로 살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레이저 장군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재소를 툴라로사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코치스는 툴라로사로 가지 않고 그를 따르는 부족민을 데리고 애리조나 남동부의 치리카우아 바위산속으로 들어갔다.

아파치의 두 백인 친구

1872년 9월 백인 몇 명이 코치스가 은거중인 산을 찾아왔다. 전일부터 알고 지내던 제퍼즈(Thomas Jonathan Jeffords)가 하워드(Oliver Otis Howard) 장군을 데리고 코치스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제퍼즈와 아파치와의

인연은 약 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퍼즈는 우편배달부였는데 아파치 인디언들이 우편마차를 자주 습격하는 바람에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자 혼자서 코치스의 본거지로 찾아왔다. 그는 개인적인 평화조약을 아파치와 맺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솔직하고 용감한 행동에 감동을 받은 코치스는 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제퍼즈와 동행한 하워드 장군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게티즈버그 전투의 영웅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는 남북전쟁 중에 팔 하나를 잃었다. 하워드 장군은 열하루 동안이나 아파치 요새에 머무르면서 아파치 인디언 추장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인디언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였다. 하워드 장군은 코치스를 설득하여 리오 그란데강(Rio Grande)의 큰 주거지역으로 아파치족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코치스의 집요한 주장에 오히려 하워드 장군이 저 치리카우아 산 서쪽 편에 새 주거지역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새 주거지역의 주재관에는 제퍼즈가 선임되었다. 1874년 봄 코치스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제퍼즈는 주재관을 그만두기를 원했으나 코치스의 아들 타자(Taza)와 나이치(Naiche)의 간청에 따라 계속 같이 있기로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8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화랑세기의 대역본, [미실은 재색이 뛰어났는데 진흥왕과 진평왕을 섬겨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미생랑 또한 화랑에 들어갔다. 공은 지소태후를 섬겨 충성을 다했는데, 총애가 줄어들자 몸을 나라에 바치기를 원하여 낭도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아가 과연 큰 공을 세웠다. 미실이 총애를 얻게 되자, 벼슬이 각간角干으로 오르게 되었다. 부인인 묘도 또한 공주에 이르러 대원신통大元神統을 있게 되었으니, 아! 성대하다.

찬하여 말한다: 색으로 섬기어 충성을 모두 다 했다. 용맹스러움으로 나라를 받들고 또한 그 공을 다했다. 부인인 묘도는 위화랑공의 손녀인데 배필로 삼아 미화美花를 낳으니 천도天道는 아득하고 오래도다.]

미실은 진흥왕과 그의 아들 진지왕, 그리고 진지왕(김금륜, 사륜이라고도 한다)의 형인 동륜태자의 아들 진평왕(김백정) 등 세명의 왕, 즉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3대의 왕에게 색공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세종(지소태후의 아들)의 정인으로 궁에서 있을 때 진흥왕의 맏아들 동륜태자에게도 색공을 하였다. 이것은 진흥왕의 왕후인 사도왕후

의 명으로 이루졌으며 임신까지 하였다. 동륜태자가 왕위에 오르면 대원신통의 인맥姻脈으로 왕후를 이으려는 대원신통의 우두머리 사도왕후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동륜태자는 왕위에 올라보기도 전에 또 다른 미녀 보명공주의 치맛폭을 찾아서 월담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 사건은 미실이 사도왕후의 명이긴 하지만 동륜태자와의 관계를 진흥왕과 세종이 알까봐 동륜태자에게 보명공주를 동생인 미생을 통하여 연결해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렇게 동륜태자는 미녀들과 색사를 즐기다가 '개죽음'을 당하였고 왕위는 동생인 금륜에게로 돌아갔다. 하지만 금륜은 왕위에 오래 있지 못하고 밀려났으며 동륜의 아들인 김백정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신라의 26대 진평왕이다.

동륜태자의 '개 사건'으로 미실은 출궁되었다가 상사병에 걸린 세종의 요청으로 지소는 다시 미실을 입궁시켜 세종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그 후 미실은 진흥왕을 사모하였다. 곧 이 소식은 진흥왕의 귀에 들어갔고, 진흥왕은 왕후 사도에게 "너의 조카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미녀인데 어찌 너의 임첩(사도 왕후에게 딸린 첩)이 되지 못하고 다른데로

시집갔는가?" 라는 질문에 사도는 미실을 진흥왕에게 색공하도록 추천하였다. 진흥왕이 미실과 하룻밤을 지낸 뒤에는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미실의 특별한 음사는 왕의 총애를 더욱 가중시켰고 미실은 왕후에 버금가는 전주殿主가 되었다. 그리고 진흥왕은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도 미실을 옆에 두고 시중을 들게 했으며, 문서를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고 나니 모든 권세는 옥진에게로 돌아갔다. (옥진은 박영실의 처이며 그들 사이에 딸 셋을 두었다. 사도-진흥왕비, 묘도-2세 풍월주 미진부공 처, 그리고 흥도가 그들이다. 여기서는 대원신통을 의미한다. 옥진으로부터 미실에게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대원신통의 색공은 탁월하였다)

이렇게 색공으로 권력을 잡은 대원신통의 여인들은 576년 진흥왕이 죽었을때 그들은 색공의 진가를 발휘했다. 진흥왕이 죽자 사도(진흥왕비)와 미실, 그리고 미생(미실의 동생)이 왕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 사륜(금륜, 진지왕)에게 색공으로 흥정을 하였다. 즉 미실과 상통을 하게 한 후 미실을 왕비로 맞기로 약속하면서 사륜을 즉위시

켰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사륜(진지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사도와 미실 등이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개죽음'을 당한 동륜태자의 13살난 아들 백정을 왕위에 올렸다. 그가 신라의 26대왕인 진평왕이다. 진지왕의 4년간의 짧은 치세는 인통姻統면에서는 대원신통과 진골정통간의 왕실에 인맥姻脈과 색공을 제공하는 싸움이었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동륜파와 사륜파(금륜파)의 왕권싸움으로 볼 수 있다.

황음무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폐위되었다는 진지왕, 삼국사기에는 진지왕이 방탕한 짓을 하다가 폐위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도화녀'와의 설화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기록이 없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用 (용)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日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罪)를 사하여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 마태복음 6:11, 12.

한국정치의 시급한 문제는 4:6으로 뒤집힌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국정치 판도와 20대 국회다.

지난 20일 “정보 여당발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더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손잡고 경제법안들을 뒤집기 시작하게 되면 대외신인도 하락과 연결된다. 침체상태의 한국경제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

야당들이 개성공단 중단 철회를 내걸고 나서면 대북 정책기조도 그 틀부터 흔들릴 것이다.

새누리당이 5월초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원내 대표를 뽑기로 했다.

선출된 원내 대표가 허물어진 지도부를 바꿔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지 아예 외부에서 초계과형 인물을 영입 수습을 맡길지는 좀 더 지켜 볼 일.

박근혜 대통령은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 는 외마디 외연 입을 닫고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중구난방 그 자체라고나 할까?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분열 조짐마저 나타나면서...

문제는 4:6으로 뒤집힌 여소야대의 현실과 20대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발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검토” 하겠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다.

28일 오전에 북한은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고 실패한지 11시간만에 추가로 한 발을 더 쏘지만 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하루에 두 차례나 시도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란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7시 26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무수단 1발을 추가로 발사했으나 수

Km 올라가다가 공중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원산 인근 해역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지만 몇 초만에 추락해 실패했다.

북한은 2007년 실전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을 공개하고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쯤 동해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사를 시도했지만 수 초만에 상승단계에서 폭발하며 실패했다.

3차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 미사일 기술의 심각한 약점이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초 제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여 “축포” 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 체면을 망가뜨리게 됐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射)거리가 3000km - 4000km로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전역과 괌 미군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따라서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로 간주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비공식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긴급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안보리 4월의장국인 중국에 요청해 이뤄졌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자체만으로도 안보리 결의를 위

반한 것이라며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을 통해 북한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用 용: ① 可施行 가시행: 쓸 용 ② 器也 기야: 그릇 용. 발음은 ①과 ②가 같으나 “그릇器” 는 4개의 입(口)들이 동서남북 또는 하늘에 두 입(口), 땅 위에 두 입(口)으로 나뉘어 온 우주에 “말씀: 입(口)은 말하는 도구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림.

4개의 입(口) 가운데 큰 대(大)자는 하나님(-)과 인(人)자 예수님 부자(父子)를 그리는 상징.

따라서 用은 하나님 부자(父子)의 신분증을 그린다. 冂: 遠界 원계: 멀 경은 인간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멀리 여행하는 인생” 을 그리고 그 여행을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 : 사랑을 생산하다” 그 사랑의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께서 죄(罪) 없으신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짚어낸 사랑의 모형을 따라 + : 십자가 쌍으로 겹쳐져서 “예수 믿는 식구, 크리스천(Christian)을 증거” 하는 것이 用,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표시(表示)가 “用” 이다.

이 用을 설명해서 그림처럼 풀어놓은 글자가 “以: 用也 용야- 써 이”. 이는 그림 그대로 ① 나(또는 내가): “+ : 我也 아야- 나사” 자에 “人 인: 곧 인자(人子) 예수님이 함께한다” 는 뜻.

이보다 더 확실한 그림 글자가 “似: 肖也 초야. ‘닮을 초(肖)’ 즉 ‘나(나)를 인자(人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人)이 나(나)를 앞뒤로 감싸서 하나님 식구(食口)로 만든다” 는 해석.

문제는 “肖: 類似(유사) 닮을 초” 가 “하

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몸(用:肉)에 증명(肖 소 또는 肖 類似 유사- 닮을 초)이 되려면 말, 행동, 생각 등이 ‘肖’ 가 증명되지 않고 “말과 생활, 성실이 따로 갈라지니 似是而非(사시이비)”.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利)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In their greed these teachers will exploit you with stories they have made up. Their condemnation has long been hanging over them, and their destruction has not been sleeping. - 베드로후서 2:3.

이것은 거짓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부터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되 마지막 심판에 의해 형벌을 받을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Yet I am not alone, for my Father is with me.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 요한복음 16:32, 3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三重職任)은 첫째 왕(王):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David's)의 왕위를 계승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누가복음 1:32, 33), 다음은 모세가 예언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시며(신명기 18:18, 마태복음 7:28, 29), 끝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罪)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히브리서 7:1-12) 천국왕(天國王)이 되셨으니...



EMF(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34년 기술력

꾸준히 잘자리에서 날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런것은 온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랫목 溫水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검색하세요! www.heraldemart.com

(100cm x 200cm)
\$375

싱글사이즈

(145cm x 200cm)
\$435

퀵사이즈

01 공중-기판 원동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보타가 없으니 소음 걱정 특!

03 7중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마트 가전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특!

확실한 무소음 보증

- 자기도 원단 사용으로 고급스런 디자인과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

무료배송 (하와이, 알라스카는 \$90추가)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청년의 **비전**

Show!
One Korea!

2016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참가 대상 지역 초·중고, 대학(원)생, 사회인, 국내·외/탈북, 현지인, 잠적공사후손, 군인 등 2명 이상 5명 이내의 팀

발표 방법 팀별 2~5명으로 편성, 10분 이내로 자유형식 발표
※ PI·포론·뮤지컬·공부·연극·개그·연주·마술·댄스 등 모든 퍼포먼스 허용

대회 신청 참가 신청 마감: 5월 20일, 자료 제출 마감: 5월 27일
신청서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
<https://sites.google.com/site/bostonnuacorg>

대회 진행 예선대회: 6월 4일(토) Harvard 대학
※ 각 예선대회 최우수팀 본선대회 진출
본선대회: 7월 18일~22일(잠실롯데월드몰 및 캠프그리브스)
※ 방송중계 및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행사 진행

문의연락처
문미자 mijayun@hotmail.com / 조진행 contact.bostonnuac@gmail.com

총 2억원 상당의 상금 및 다양한 특전

예선 시상	최우수상	1팀	본선참가특전
	우수상	2팀	50만원
	장려상	3팀	30만원

- 최우수팀은 본선출전권 부여
- 해외 최우수팀(전원)에게는 상금으로 본선참가를 위한 항공권(국제) 지원
- 본선팀은 대회기간 합숙비 전액지원
- ※ 본대회 지역예선대회에 지원

본선 시상	대상	1팀	1천만원
	최우수상	1팀	5백만원
	우수상	5팀	3백만원
	장려상	13팀	1백만원

- 선원 '통일·안보레미, 인증서 수여
- 국내·외 통일안보 행사에 초청
- 안보 통일인보레미 워크숍 초청
- 안보대회 진행요원으로 참여
- ※ 시상 종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www.showonekorea.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29) 투자자 잘못

장거리를 운전하며 실패로 이어지는 투자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직장인들을 위한 연금(pension) 플랜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수명은 매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3, 40년을 일정한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401k, 403b, TSP, IRA, 등 모두 은퇴플랜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은퇴자산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투자의 기본지식이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자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이유는 투자자 잘못만은 아닙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도 없고 대학 가면 자기 전공만 공부한 후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한 예로 2013년 S&P 500지수가 32% 증가했습니다. 2014년 초 갤럽조사(Gallup poll)에서 단 7%만이 수익률 32% 상승했음을 알고 있었고 대개는 주식시장이 좋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30%나

되는 응답자의 대답이 "주식시장에 변화가 없었다." 혹은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국분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한국의 금융업이라는 것이 길게 잡아 약 4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면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지난 30년 동안 S&P 500지수 평균 수익률이 11.1%입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단 3.69%였습니다. 매년 7.4%라는 높은 수익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투자자들이 자주 투자 종목을 사고팔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며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 높은 수수료(commission)와 투자경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수익률 7.4%는 \$50만 불 투자자 10년 후 \$100만 불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을 알게 모르게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푼 벌기 위해서 얼

마만한 노력을 하는지 한인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미국에 600,000명의 주식브로커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인의 숫자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재정설계사라고 소개합니다. 금융상품 등을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재정설계사'가 아니라 판매(salesman)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상품을 팔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파는 금융상품이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파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파는 것(conflict of interest)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자산을 분산투자한다고 말하며 수수료가 있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자산을 운용하며 부과하는 운용비(management fee) 외에도 숨어있는 펀드 수수료와 경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가 먹어 갈수록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현명해진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도 같이 현명해질 것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의 인지능력(cognitive function)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과 투자에 관한 결정에서는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더 크다고 연구결과가 말합니다.

* 2000년 말에 미국 투자자 67%가 주식에 투자했다고 갤럽조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기술주 주식 폭락과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많은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떠났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54%만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S&P 500지수는 연평균 15% 상승했습니다. \$50만 불 투자는 \$130만 불로 불어나는 수익률입니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높은 수익률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투자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투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경험하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오랜 역사를 보면 매년 10%라는 수익률을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대부분 투자자 자신의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P US History 준비, 키워드를 분석하면 길이 보인다 ⑨

DBQ 준비를 위한 황금률 3. 논증의 근거

AP 미국사의 에세이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제 (thesis)가 적절한 근거와 예시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DBQ 에세이에서는 주어진 7개의 문헌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의 동원도 필요하다. DBQ 에세이의 만점인 7점중 총 2점은 (문헌 분석)에, 그리고 2점은 (배경지식의 활용)에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DBQ 점수의 절반 이상은 바로 어떤 근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헌 분석〉은 첫째, 에세이의 논제를 입증하거나 유관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일곱 개의 문헌 (1차, 2차 자료) 중 적어도 여섯개를 잘 활용했는지를 평가한다. 두 번째로는 적어도 네 개의 문헌에서 저자의 관점과 의도, 역사적 배경, 소구 대상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에세이에 사용했는지 (sourcing the document)를 평가한다.

실제로 에세이를 쓸 때는 두 번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세이를 쓰기 위한 첫 단계는 문헌을 점검하고 에세이의 전체 윤곽을 잡아야 하는 '리딩타임'이자 골드타임이다. 무작정 읽기보다는 SOAPS(Subject, Occasion, Audience, Purpose, Speaker)의 원칙을 활용, 주어진 자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Subject)는 무엇이며, 어떤 배경 혹은 사건

(Occasion)과 관련된 사료인지, 그리고 원래 누구를 대상(Audience)으로, 어떤 목적으로(Purpose)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누가(Speaker) 그 사료의 작성자인지 등을 기본으로 문헌을 분석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메모해 둔다.

문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아웃라인을 잡고 에세이의 어느 단락에서 각 문헌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DBQ 에세이가 문헌기반 에세이이지, 문헌에 관한 에세이가 아님은 유념해두어야 한다. "as the Document 1 implies" 식의 전개는 감점요인이다. 또한 이미 주어진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불필요하게 문장을 늘려 정보전달에 무의미한 단어를 나열한다든가 주어진 문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옮긴다든가하는 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주어진 모든 문헌이 같은 관점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겠다. 때로는 논제와 다른 입장을 피력하는 문헌이라고 해도 반전을 위한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812년 후의 미국 사회는 국민주의(Nationalism)가 부흥했던 화해의 시대(Era of good feelings)로 알려져 있다 (Doc 1). 그러나 동부, 서부, 남부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주의(Sectionalism)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

였다. 가령 1824년 선거의 경우 네 명의 후보가 모두 민주 공화당의 후보였으나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 (Doc 3)."라는 식의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 Doc 1과 Doc 3은 같은 시대에 대한 각기 다른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들이었지만 논증의 전개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한 문헌들이었다.

또 다른 2점은 제시한 문헌이 아닌 맥락과 근거를 논증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평가되는 〈배경지식의 활용〉항목에 할당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DBQ는 주어진 문헌에 "관한"에세이가 아니라, 주어진 문헌을 잘 짜여진 논증의 근거와 예시로서 사용하는 에세이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어진 문헌에 "관한" 에세이가 아닌 이상, 외부자료와 배경지식을 능숙하고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에세이의 주제와 관련을 가지는 배경 지식 즉, 보다 폭넓은 역사적 사건과 시대, 사건의 전개과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논증을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난 주의 에세이 등장했던 "1960년대와 1989년 사이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이라면, 1960년대 린든 존슨 행정부가 뉴딜의 연장선에서 시행했던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 The Great society)와 민권법 제정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부의 이

에 대한 보수주의의 입장 (가령 골드워터의 1964년 선거 캠페인 혹은 남부 백인들이 주도한 미국 독립당 (American Independent Party)를 언급한다든가, 혹은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대법원 판례들 (사실은 적법절차에 관한 판결들이다)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응을 언급하는 것은 "신보수주의의 등장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의 질서와 체계를 수호하는 반동적(Reactionary) 동기였다"는 논제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배경지식-맥락화가 될 수 있다.

물론, Antiwar protests, Civil Rights Act (1964), Debates over nuclear Weapons, Equal Rights Amendment(ERA), Kent State shootings, Nixon's "Law and Order" campaign등 외부 자료 (outside source)로 사용할 "예"들도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 마지막으로, APUSH 보는 모든 학생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만족할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2016년의 AP USH 특강 칼럼 시리즈를 마감한다.

일러두기: 소피아 선생님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3월, 4월 두 달간 AP US History 문제 분석 특강으로 9회 연재됩니다. AP US History 시험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와이즈프렘 (617-600-4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CHAMPIONSHIP

Korean Consulate General Cup in Boston

**POOMSAE
BREAKING
SPARRING
TEAM DEMO**

SUNDAY, MAY 15, 2016

GRAFTON HIGH SCHOOL, GRAFTON MA

- KPNP Electronic Scoring
- Pre-Registration by April 25th
- Final Registration by May 9th
- Admission \$10 (Free Under 4)



HOSTED BY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SPONSORED BY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SPONSORED BY
DYNAMICS MARTIAL
ARTS SUPPLY

more information at www.masta.us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4월 마지막주)

● H-1B Updates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올해 H-1B의 진행 과정은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아직 모든 신청서에 대한 추천당락 여부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추천에 뽑힌 신청서에 대한 Receipt Notice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Receipt Notice가 발송 중이니 아직까지 아무 소식을 못 받았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추천에 뽑힌 신청서에 대한 Receipt Notice를 추천이 끝난 뒤 한달이 넘은 뒤에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늦어도 오는 5월12일부터 급행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월12일 부터 15일 안에 급행을 신청하신 H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에 뽑힌 급행 신청자들은 늦어도 5월말이면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 새 시민권 신청서 (N-400)

지난번 칼럼에서 시민권 신청서(form N-400)가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오는 8월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8월10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주의하실 부분은 기존에는 신청서 작성시 제 3자 (변호사 포함)로부터 도움을 받으셔도 신청인의 서명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10일 이후 부터는 제3자로 부터 신청서 작성 또는 번역/해석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신청서에 도움주신 분과 번역/해석하신 분들의 서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orkload Transfer

이민국은 서류 심사와 효율을 높이고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 업무가 많이 몰려있는 곳의 서류들을 상대적으로 업무가 원활한 곳으로 옮겨서 심사를 해왔고 최근 이러한 transfer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과 비자 관련 업무는 전국의 5군데 service center

에서 처리됩니다 (Vermont Service Center, California Service Center, Texas Service Center, Nebraska Service Center 그리고 Chicago에 있는 National Benefit Center). 원래 이들 service center 들은 관할지역의 대부분의 이민/비자 관련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 이민국은 이 service center 들을 특화했습니다. 예를들면, H 비자의 심사는 Vermont 와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서 Vermont 와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서 하지만, 최근 다시 더 효율적인 service center 이용 방안으로 특화되지 않은 service center 라도 업무량이 많지 않으면 업무량이 많은 service center 로 부터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했고 이러한 transfer 가 꽤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예를들면, 작년초 부터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서가 Texas Service Center 로 폭주 수준으로 접수됐고 Texas Service Center 의 서류 심사 기간이 말도 안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Nebraska Service Center 와의 업

무 분담으로 최근 다시 심사기간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특화된 Service Center 에서 서류를 다른 Service Center 로 이전할 때 반드시 Transfer Notice 를 신청인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간혹 이러한 Transfer Notice 를 받으신 분들 중 본인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어 케이스가 transfer 됐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H-1B 이후 대책 세우기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민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올해도 H-1B cap이 접수 첫 주 만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결국 USCIS는 접수된 신청서들 중에 cap 숫자만큼 추천을 하여 심사를 할 것입니다. '내 케이스가 추천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추천에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H-1B가 되지 않았을 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는 O, J-1, P, H-3, E-2 비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이 5월 10일 이전이면 17개월 연장을 그리고 5월 10일 이후면 최고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내년에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 신청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의 차선책으로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등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 재능 소유자 비자" 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비자의 경우, 접수 기간이 자유로우면서 횟수에 제한이 없이 연장이 가능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H-1B보다 장점이 많은 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를 꺼려한다면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1B의 차선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자 중 하나는 J-1비자입니다. J-1비자는 흔히 "인턴/교환연수 비자" 라고 불립니다. J-1비자는 교수, 학생, 전문직 종사자, 의사, 일반 연수인 등이 미국에 연구, 인턴 혹은 연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J-1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들과 차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J-1비자는 H-1B 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H-1B로 비자변경이 쉽습니다. 유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H-1B와 달리 급여 수준에 제약이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인턴 프로그램인지 연수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의 기간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J-1의 경우 2년 귀

국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waiver가 가능할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P비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비자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그들을 지원하는 필수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므로 "예술가/연예인 비자" 라고 불립니다. 본인이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코치나 꼭 필요한 지원 인력은 P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들과 관련되어 필수 지원을 하는 업무라면 해당 비자가 가능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H-3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입니다. H-3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 라고 불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H-3 비자는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과 자본이 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 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보다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E-2 investor비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옛 사람들의 지혜를 기억하고 H-1B 추천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방안을 생각해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파나소닉 플로어 모델 대세일

100세 동반자
베네티엘스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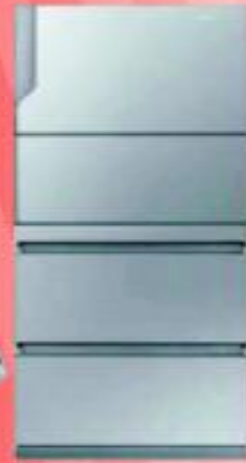
EP30067 ~~\$4,500~~
\$2,300

EP30066 ~~\$4,000~~
\$1,700

미동부 최대 마사지체어 종합 전시장

SAMSUNG 김치 냉장고 BIG SALE

220L **\$1199** REG. \$1799
121L **\$799** REG. \$999
180L **\$999** REG. \$1300



삼성 김치냉장고
장속의 시스템을 구현한
메탈그라운드
고급 전기 방식 무료 증정
무료 딜리버리, 3년 워런티



딤채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구입시
위니아 에어 워셔 무료 증정
소형 구입시
고급 전기 방식 무료 증정

직접 오셔서
최첨단 마사지 체어
무료 체험 해보세요!

단체 선물용 소형 연마기
(5개 이상구입시) 구입시
최대 40% 할인

전문 기술자 상주로
(Part & Labor)
최대 5년 / Full Warranty

안마의자 구입시
조양다나, 반신욕기, 풍고 안마의자
크레딧 드립니다

미동부공식 대리점



~~\$7,999~~
\$5,220
Made in Japan



Dream Wave
Massage Chair

~~\$12,500~~
\$8,550

선박순 10명
Body Slimmer (\$1,200) 상당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무료 증정



Inada Flex 3s
Massage Chair

Fuji Cyber Relax
FJ-3650B



30개월
\$80/월
3년 Warranty

프락이 간편하여 휴대 선량로
개발된 신제품, 4개의 마사지 롤러,
강력한 진동 마사지 체어



Fuji Cyber Relax
ZERO-G FJ-4600B

3D 방식 배구, 일본, 중국, 한국
전용 마사지 7종, 한국인한테
가장 인기 많은 제품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Fuji Cyber Relax
FJ-5500
L자형 마사지
가방, 대나무
방열이파자
및사지
해이
기동됨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Fuji Cyber Relax
EC-3800
세계최초 4D 방식,
초정밀 마사지 기법
충동방출, 리프팅

90개월
\$120/월
3년 Warranty



Panasonic EP-MA73
ULTRA 3D 방식,
다각도 마사지를,
Multi Heat 기능,
Hot Stone 치료기법

60개월
\$125/월
7년 Warranty



Panasonic EP-MA70
3D 방식 레이 마사지
7종과 스팀케어 기법

60개월
\$110/월
3년 Warranty



Apex Lotus

48개월
\$93/월



Apex Reget

48개월
\$141/월



Body Slimmer
FJ-099
Body
Slimmer



Panasonic
Core Trainer



HEALTH MATE
반신욕기

BIG SALE
\$1,800
REG. \$2,400



무릎사우나
무릎입구 높이 조절기능

특별세일
\$600 → \$500



최대 제고 보유 / 최신헌
태진 노래방기 대세일

35,000대 이상 수출,
상용급 넘쳐는 내구성,
신규 인력해 입체이동 가능

BIG SALE



베네티엘스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코라아 빌딩 1층 201-417-5350

베네티엘스
한남제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9-809-1167

하이트론스
HTRONS

1 Rensselaer PL, Ridgefield NJ 07067
201-417-5350 / 201-941-0024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물 안, 연매상 \$148,000
-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10,000 주 6일 오픈, 풀 리커 면허증
-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BOSTON Eds Boston Education World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과목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 및 리뷰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문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 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